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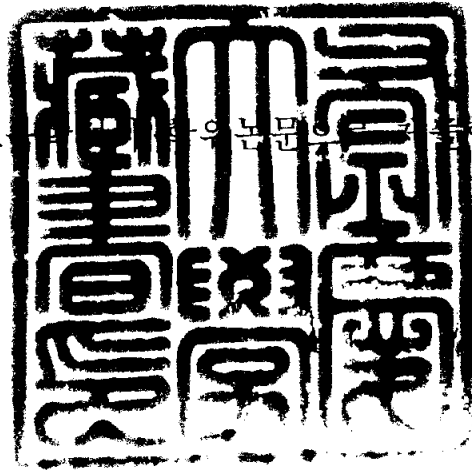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한 · 일 민담의 연구

- 등장 동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상 규

이 논문을 교 육 학 위 논문 으로 등록함.



200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어교육전공

윤 재 희

# 윤재희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6월

|     |       |     |
|-----|-------|-----|
| 주 심 | 최 연 희 | (인) |
| 위 원 | 신 종 대 | (인) |
| 위 원 | 김 상 규 | (인) |

# 목 차

|                            |    |
|----------------------------|----|
| I. 서론 .....                | 1  |
| 1. 연구 목적 및 방법 .....        | 1  |
| 2. 선행연구 .....              | 3  |
| II. 민담에 대해서 .....          | 5  |
| 1. 민담의 개념 및 특징 .....       | 5  |
| 2. 민담의 분류 .....            | 7  |
| III. 한·일 민담의 비교 .....      | 11 |
| 1. <花咲爺>와 <형제와 개> .....    | 13 |
| (1) <花咲爺> .....            | 14 |
| (2) <형제와 개> .....          | 18 |
| 2. <舌切雀>와 <홍부와 놀부> .....   | 28 |
| (1) <舌切雀> .....            | 29 |
| (2) <홍부와 놀부> .....         | 33 |
| 3. <勝々山>와 <심술궂은 호랑이> ..... | 41 |
| (1) <勝々山> .....            | 41 |
| (2) <심술궂은 호랑이> .....       | 45 |
| 4. <猿蟹合戦>과 <게와 원숭이> .....  | 51 |
| (1) <猿蟹合戦> .....           | 51 |
| (2) <게와 원숭이> .....         | 52 |
| IV. 결론 .....               | 60 |
| 참고문헌 .....                 | 63 |
| 부록 .....                   | 65 |

# **The study of Korean-Japanese folktale story**

**- as the main section that the comparison of main animals -**

**Yun, Jae-H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In this thesis, as the comparison of animals of Korean and Japanese folk stories I want to enlarge the range of mutual understanding as a consideration from the life of the peoples to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culture. Especially I will introduce how to express the animals and how men's minds are reflected in the animals in those stories. In addition I clarify what the common and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through the study is.

We can see the dog appeared both <Hanasattagie> of Japan and <The brother and the dog> of Korea. In those stories, the dogs are considered as not only a domestic animal but also the spirit animal. In other words, the dog is described as a faithful animal and delivering the fortune to the people.

People would find easily the sparrow in <Sitagirisuzume> of Japan and the swallow in <Hungbu and Nolbu> of Korea. We have learned encouraging good and punishing evil through the requital of a favor with people. Besides, There is in common, which is the same sort of characters in the story such as a sparrow and swallow. However, they are different. For example, people think the sparrow is a common and familiar bird in Japan and the swallow is a divine nature in Korea. It is because the consciousness of the birds and Eco-circumstance are different. Generally, the birds mean the heavenly gods or their messenger, the spirit of the ancestor, and an incarnation of the Buddha in the folk stories.

The raccoon in <Kachigachiyama> of Japan and the tiger in <The ill-natured

tiger>of Korea are the main subject matters. Although the characters are a littlebit different both of them they are taken revenge by the people who animals did harm. The raccoon always plays a role as causing harmful of the people. The tiger sometimes plays a stupid animal role in folkstory and a supernatural animal role in the myth or the legend. In old times, the tiger was a nonexistentanimal in Japan; therefore the stories about the tiger hardly ever exist. Contrary to Japan, the tiger was a common animal in Korea, therefore the stories about it is plentiful.

The avaricious and wicked monkeys appear both the stories, <Sarukanikatsen> of Japan and <The crab and the monkey> of Korea.

The monkey is the most a common animal in the story of Japan. But we seldom find monkey in the story of Korea because the monkey is an inhabitant animal as well as an unfriendly animal in Korea. So even though the monkey appears in the story of Korea Ibelieve that the story <The crab and The monkey> is come from Japan.

The animals' frequence and sort, role, mean are appearing differently in the stories of both countries because they are related to the eco-circumstances and the signal of the people, the difference of the folk custom, the consciousness from the difference of culture etc.

The folk stories of both countries have many similarities both the development and the framework. It means that two countries which are neighbouring countries geographically have many historical and cultural exchange each other. Although the animals and the materials are different, it means that two countries' culture, national characteristics etc. are different both countries.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s in the stories of th countries,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from the culture of both countries to national characteristics. So the subject which is the study of the folk stories demands close investigation from now on.

# I. 서 론

## 1. 연구 목적 및 방법

민담은 민족의 이동과 더불어 또는 교역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수입되었다. 그래서 민담을 연구하는 것은 그 나라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설화, 특히 민담 속에는 그 민족의 사상과 감정이 진하게 녹아있기 때문에 그 민족의 특수성이 가장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담 속에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사상 등 민담 생성 당시의 세계를 읽을 수 있다.

민담은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동물을 소재로 한 민담의 비중도 크다. 이것은 인간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동물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문학 장르인 민담 속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때로는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때로는 악한 역으로, 때로는 선한 역 등 다양한 역할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담은 민담에서 동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동물세계를 의인화시켜 전개하는 내용을 가진 이야기이다. 동물담은 동물이 주인공이 되, 여기에 등장하는 인간은 그 주인공의 활약에서 보조적 또는 조연적 구실을 하는 정도로 그치며, 동물 보은설화도 동물담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의인화(擬人化)된 동물들의 이야기를 동물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

는 동물들은 인간화된 인격을 가지고, 인간처럼 대화하고 행동하고 선행과 악함, 현명함과 우둔함의 갈등을 일으킨다.

본 연구에서는 민담 속에 등장하는 동물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일본의 민담은 5대 민담 중 동물이 등장하는 4가지 민담과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민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5대 민담이라고 하는 것은 「五大昔話」 또는 「五大御伽噺」라고도<sup>1)</sup> 하는데, <桃太郎> <花咲爺> <舌切雀> <勝々山> <猿蟹合戦> 등 5가지 이야기를 일컫는다. 문헌사적으로 보면 이 5대 민담이 전체 일본국민에게 보급된 것은 1700년대 江戸中期의 ‘赤本’에 게재된 뒤 교과서에 취급이 되면서부터 라고<sup>2)</sup>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받은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5대 민담을 많이 들어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을 자신들의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일 민담 속에 나타난 동물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민담 속에서의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 혹은 동물이 어떤 상으로 그려졌는지, 어떤 의미로 등장했는지 등을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 그 민족의 삶의 모습이나 민족성, 문화까지 고찰해 양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필자가 5대 민담을 선택한 이유는 생소한 민담보다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민담이 그 나라의 보편적인 민족성이나 의식구조를 나타내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의 5대 민담은 일본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비교할 한국의 민담은 모두 한국의 대표적인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은 양국의 성격과 기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필자가 선택한 민담 속의 동물만으로 한·일 민담에 나타난

1) 稲田浩二[外]編, 『日本昔話事典』, 弘文堂, 1977, pp.344-355

2) 崔仁鶴, 「韓·日民譚의 比較研究」, 『세 교육 263』 수록, 大韓教育聯合會, 1976, p.118

동물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다소 성급한 면도 없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잘 알려진 민담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 2. 선행연구

한국의 민담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孫晋泰의 『朝鮮民族說話の研究』부터라고 할 수 있겠고, 일본에서는 高木敏雄가 『帝国学』, 『郷土研究』에 민담을 발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비교연구는 특정한 유형을 놓고 주로 인접한 일본의 설화와의 비교로 시작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행하여진 것은 1927년 孫晋泰에 의한 「甄萱式伝説」라는 글이 아닌가 한다.<sup>3)</sup>

일본은 柳田国男가 1943년 이후 옛날이야기를 무카시바나시(昔話)라는 관용어로 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関敬吾에 의해 분류작업이 끝나고, 池田弘了는 세계적인 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일본의 옛날이야기를 <세계 민담유형 색인>에 적용시켜 대조 정리를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孫晋泰 이후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대개가 문학적 및 문헌사적인 연구로 그친 것이 과거의 실정이 아닌가 한다.<sup>4)</sup>

그 이후로 비교연구는 활발했는데, 우선 成者說의 「韓日說話 比較研究의 一例」<sup>5)</sup>와 「韓日民譚의 比較研究」<sup>6)</sup>를 들 수 있다. 「韓日說話 比較研究의

3) 이 글은 뒤의 1947년刊 『朝鮮民族說話의 研究』라는 책에 다시 収録되었다.

4) 崔仁鶴, 「韓・日民譚은 同一郷土에서 生成했다」, 『読書生活10』 수록, 三省出版社, 1976 p.371

5) 成者說, 「韓日說話 比較研究의 一例」, 『古典文学研究1』 수록, 韓国古典文学研究会, 1971

·例」에서는 한·일 설화를 溫潑·武王계 설화와 炭焼小五郎설화의 경우를 들어 비교하고 있으며, 「韓日民譚의 比較研究」에서는 한·일 민담을 변이 양상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비교의 실제에서는 동물담(動物譚)·인간담(人間譚)·소화(笑話)로 나누어 각각의 사례를 들어 민담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옛날이야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 崔仁鶴의 「韓日昔話の比較研究」<sup>7)</sup>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昔話의 이론, 연구사 및 연구동향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한·일 민담을 비교연구하고 있다. 또 분류학적 측면에서 한·일 민담을 비교한 「韓日民譚의 共通性」<sup>8)</sup>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민담의 유형에 나타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에 그것과 유사한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어떠한 민담군(民譚群)의 유사도가 많은지, 혹은 어떤 것이 적은지를 비율로 나타내고 있다.

필자의 연구와 관련이 깊은 연구는 金容儀의 「한일 동물설화의 비교연구」<sup>9)</sup>인데, 이 연구에서는 任哲宰의 「韓國口伝説話」(12권)에 수집되어 있는 동물설화 160화와 「日本の民話」(26권)에 수록되어 있는 동물설화 187화를 대상으로 양국의 동물설화에 등장하는 동물 빈도 순위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6) 成善說, 「韓日民譚의 比較研究」, 檀国大学校大学院 博士学位論文, 1978

7) 崔仁鶴, 『韓日昔話の比較研究』, 三弥井書店, 1995

8) 崔仁鶴, 「韓日民譚의 共通性」, 『明知語文学9』 수록, 明知大 国語国文学科, 1977

9) 金容儀, 「한일 동물설화의 비교연구」, 『日本語文学10』 수록, 韓国日本語文学会, 2001

## II. 민담에 대해서

### 1. 민담의 개념 및 특징

민담은 구전으로 계승되는 옛날이야기를 말하는데, 민간설화, 민화(일본) 또는 옛날이야기 등 여러 용어로 통칭되고 있다. 서구어에서도 포크테일(Folktale), 뮐헨(Märchen) 등으로 불리고 있으나 그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이설(異說)이 많다. 민담은 신화나 전설에 비해 훨씬 역사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화자나 청자가 한결같이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믿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시간적으로는 '옛날 옛적에……'라고만 전제하고, 공간적으로는 극히 막연하여 이야기에 유래된 하등의 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sup>10)</sup>

민담이라는 용어와 병행하여 민화(民話)·동화(童話)·전래동화(伝來童話) 등의 학술용어(學術用語)가 있다. 관용어로는 이바구·이야기·옛날이야기·옛말 등이 있다. 한 때 민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엄격히 말하자면, 이 말은 민간설화의 약어(略語)가 아닌가한다. 동화나 전래동화는 민담이 주로 어린아이에게 들려주는 것이라는 개념에서 불리어진 것이 아닌가 본다.

崔仁鶴은 「口伝説話研究」에서 「일반인들에게 친근감이 있는 관용어 '옛날 이야기'를 학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겠는데, 이것을 기피하고 굳이 민담을 쓰는 것은 한자 용어를 선호하는 잘못된 타성 때문이다.」<sup>11)</sup>라고

10) 張德順, 『韓國説話文學研究』, 박이정출판사, 1995, pp.8-9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새롭게 「民話」라는 말을 써서 민담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데, 「昔話」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양국의 서두와 결말의 형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민담이 시작될 때 ‘옛날에’, ‘그전에’, ‘옛날 옛날 오랜 옛날에’, ‘옛날 옛적 갓날 갓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등의 말이 오고, 결말은 ‘잘 살았다고 한다’,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등의 말이 온다. 일본의 민담은 ‘むかし’, ‘むかしむかし’, ‘昔昔おおむかし’ 등으로 시작하고, 결말에는 ‘昔こっばり’, ‘そればかり’, ‘こっばし’, ‘これっばし’ 등의 말이 온다.

민담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민담은 구전되는 것으로서, 내용이 해학적이고 역설적이다. 민담은 웃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이므로 극단적인 비약이 있고, 합리성이 결여된 신기한 일이 발생하여 논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흥미위주로 꾸며낸 이야기이므로 민담은 듣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생활의 지혜나 교훈, 힘과 용기도 제공해 준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민담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민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민담의 서두에는 대부분 ‘옛날에’ 혹은 ‘옛날 옛적에’라는 상투적인 말을 사용하며, 그 다음에는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 온다. 이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민담에는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민담은 단지 현재의 이야기가 아닌 과거의 일이라는 막연한 것을 나타내어 줄 뿐이다. 이렇게 민담은 막연한 과거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를 살아

---

11) 崔仁鶴, 『口伝説話研究』, 새문사, 1994, p.22

갔던 사람들에게는 현실로부터의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민담은 인간 본능의 소산이기 때문에 민담 속의 주인공은 현실과 달리 어떤 극한 상황도 극복하며, 항상 착한자·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 엄한 자연의 초월이나 기근, 권력에 대한 반항, 사회적 제도에 관한 불만 등이 주로 민담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민담을 듣는 동안 듣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잊고 해방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 2. 민담의 분류

민담을 수집하여 유형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민담자료를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민담의 분류작업은 이미 민담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어왔는데, 아아르네(Aarne)와 톰슨(Thomopson)이 1927년 최초로 『The Types of the Folktale』을 펴냄으로써 민담 분류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일찍이 柳田国男은 『日本昔話名彙』(1948)에서 민담을 크게 완형담(完形昔話), 파생담(流生昔話)으로 분류하고, 파생담(流生昔話)을 인연담(因縁話), 요괴담(化物話), 소화(笑話), 조수 초목담(鳥獸草木譚), 기타로 분류하였다.

関敬吾는 『日本昔話集成』(1950)과 이를 보완한 『日本昔話大成』(1980)에서 민담을 크게 동물담(動物昔話), 본격담(本格昔話), 소화(笑話)로 분류하였다.

崔仁鶴은 関敬吾의 분류방법을 참고하여 『한국 민담의 유형연구』(1994)

에서 민담을 동물민담(動物民譚), 본격민담(本格民譚), 소화(笑話), 형식담(形式譚), 신화적 민담(神話的民譚), 기타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민담의 분류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므로, 일본의 민담은 関敬吾의 분류를, 한국의 민담은 崔仁鶴의 분류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関敬吾는 아아르네-통슨분류법(Aarne-Thomopson, Type-index, 1927)을 일본에 맞도록 변형시켜 다음과 같이 민담을 분류하였다.<sup>12)</sup>

### I. 動物昔話

- a. 動物葛藤 b. 動物分配 c. 動物競争 d. 動物餅競争 e. 猿蟹合戦 f. 勝々山  
g. 古屋漏 h. 動物社会 i. 小鳥前生 j. 動物由来

### II. 本格昔話

- a. 婚姻譚 b. 誕生譚 c. 致富譚 d. 呪宝譚 e. 兄弟譚 f. 隣の爺 g. 六歳の客  
h. 継子譚 i. 異郷譚 j. 動物報恩譚 k. 逃竄譚 l. 愚かな動物 m. 人と狐

### III. 笑話

- a. 愚人譚 b. 誇張譚 c. 巧智譚 d. 狡猾者譚 e. 形式譚 f. 補遺譚

崔仁鶴은 『韓國說話論』에서 한국의 민담을 다음과 같이 내용적으로 분류하였다.<sup>13)</sup>

### 1. 動物民譚

#### (1) 動物의 由来

---

12) 関敬吾, 『日本昔話大成』, 角川書店, 1987

13) 崔仁鶴, 『韓國說話論』, 蜚雪出版社, 1988

(2) 動物의 社会

(3) 植物의 社会

(4) 人間과 動物

① 逃竄 ② 어리석은 동물 ③ 動物報恩 ④ 変身(化身)

## 2. 本格民譚

(1) 異類사위

(2) 異類부인

(3) 異常誕生

(4) 婚姻致富

(5) 呪宝

(6) 怪盜退治

(7) 人間과 信仰

① 他界 ② 生과 死 ③ 神과 人間 ④ 風水 ⑤ 占卜 ⑥ 呪術

(8) 孝道

① 父母에게 孝道 ② 烈女

(9) 運命의 期待

(10) 葛藤

① 父子間 ② 兄弟間 ③ 이웃間

## 3. 笑話

(1) 愚者

① 어리석은 마을 ② 어리석은 사위(남편) ③ 어리석은 며느리(아내)

④ 어리석은 놈

(2) 巧智

① 지혜자 ② 재치자 ③ 말의 才能 ④ 名裁判 ⑤ 재간 겨룸 ⑥ 어른과 아이

(3) 狡猾者

① 奸邪者 ② 誇張

4. 形式譚

5. 神話的 民譚

6. 기타(補遺)

일본의 関敬吾는 크게 動物昔話, 本格昔話, 笑話의 3가지로 분류하였으나, 한국의 崔仁鶴은 動物民譚, 本格民譚, 笑話, 形式譚, 神話的 民譚, 기타의 6가지로 분류했음을 알 수 있다.

### Ⅲ. 한·일 민담의 비교

여기서는 한·일 민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담 속에 등장하는 동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양국 민담에 등장하는 동물의 빈도순위를 살펴해보도록 하자.<sup>14)</sup>

<한국설화의 등장동물 빈도순위>

| 한국   |    |      |
|------|----|------|
| 등장동물 | 회수 | 빈도순위 |
| 토끼   | 39 | 1    |
| 호랑이  | 38 | 2    |
| 꿩    | 20 | 3    |
| 개    | 18 | 4    |
| 이    | 16 | 5    |
| 벼룩   | 16 | 5    |
| 개미   | 15 | 7    |
| 쥐    | 14 | 8    |
| 원숭이  | 14 | 8    |
| 여우   | 12 | 10   |
| 메뚜기  | 10 | 11   |
| 빈대   | 10 | 11   |
| 두꺼비  | 9  | 13   |
| 매추라기 | 9  | 13   |
| 지렁이  | 7  | 15   |
| 수달   | 6  | 16   |
| 물새   | 6  | 16   |
| 개구리  | 5  | 18   |
| 까치   | 5  | 18   |
| 메기   | 4  | 20   |

14) 金容儀, 「한일 동물설화의 비교연구」, 『日本語文学10』 수록, 韓国日本語文学会, 2001. 이 논문에서는 任杓宰씨의 「韓國口伝説話」(12권)에 수집되어 있는 동물설화 160화와 「日本の民話」(26권)에 수록되어 있는 동물설화 187화를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행하였다.

<일본설화의 등장동물 빈도순위>

| 일본      |    |      |
|---------|----|------|
| 등장동물    | 회수 | 빈도순위 |
| 원숭이     | 41 | 1    |
| 참새      | 19 | 2    |
| 두견(뺨꾸기) | 18 | 3    |
| 새       | 15 | 4    |
| 아리      | 14 | 5    |
| 여우      | 13 | 6    |
| 까마귀     | 12 | 7    |
| 게       | 12 | 7    |
| 고양이     | 11 | 9    |
| 개구리     | 10 | 10   |
| 쥐       | 10 | 10   |
| 토끼      | 8  | 12   |
| 비둘기     | 8  | 12   |
| 너구리     | 8  | 12   |
| 뱀       | 8  | 12   |
| 새우      | 7  | 16   |
| 제비      | 7  | 16   |
| 호랑이     | 6  | 18   |
| 올빼미     | 6  | 18   |
| 두꺼비     | 5  | 20   |
| 개미      | 5  | 20   |
| 수달      | 5  | 20   |
| 굴뚝새     | 5  | 20   |
| 소리개     | 5  | 20   |
| 기복이     | 5  | 20   |

인간과 동물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그러한 관계는 민담 속에서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이 다양한 역할로 등장한다. 따라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설화나 민담 속에 등장하는 동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위 표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설화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등

장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동물들의 빈도순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이야기 속에는 토끼와 호랑이의 등장 빈도수가 많고, 일본의 이야기 속에는 원숭이와 참새의 등장 빈도수가 많다. 반면, 한국의 이야기 속에는 원숭이의 등장 빈도수가 적는데, 일본은 호랑이의 등장 빈도수가 아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민담 속에는 어떤 동물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동물을 보는 인간의 시각은 어떠하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동물에 반영되고 있는가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이 양국에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화를 대상으로 삼았다. 즉, 일본의 <花咲爺>와 한국의 <형제와 개>, 일본의 <舌切雀>와 한국의 <흥부와 놀부>, 일본의 <勝々山>와 한국의 <심술궂은 호랑이>, 일본의 <猿蟹合戦>와 한국의 <개와 원숭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속에 등장하는 동물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花咲爺>와 <형제와 개>

일본의 <花咲爺> 이야기와 한국의 <형제와 개> 이야기에서는 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 개의 기묘한 행동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우선 일본의 <花咲爺> 이야기와 한국의 <형제와 개>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花咲爺><sup>15)</sup>

옛날 옛날 어느 곳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할머니는 냇가에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강에서 둥실 둥실 커다란 복숭아가 떠내려 왔습니다.

‘하나 더 떠내려 오너라. 타로오에게 주게. 하나 더 떠내려 오너라. 지로오에게 주게.’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숭아는 점점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커다란 복숭아를 건져서 집으로 돌아가 절구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멈, 할멈, 뭔가 없어? 배가 몹시 고프데.’

‘아까 냇가에 빨래하러 갔었는데 커다란 복숭아가 떠내려 오길래 주워서 절구 속에 넣어 두었어요. 그거라도 드세요.’

‘그래, 그거 잘 됐군. 그럼 한 번 먹어볼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절구 있는 테로 갔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할멈, 할멈, 할멈이 절구 속에 넣어 두었다고 한 것은 커다란 복숭아라 했는데, 들어있는 건 강아지가 아니요.’

할머니도 놀라서 달려와 절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귀엽고 흰 강아지였습니다.

‘글쎄, 아까는 분명히 복숭아를 넣어 두었는데...’

두 사람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귀여운 강아지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 후 자기 자식처럼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개는 점점 자라나 이윽고 그 근처에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개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 그 개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에게 말 위에 얹는 것 같은 안장을 얹어 주세요.’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 따위 안장 같은 건 내가 가여워서 얹어줄 수 없어.’

‘괜찮으니깐 얹어 주세요.’

---

15) 坪田讓治, 『日本むかしばなし集(三)』, 東京 新潮社, 1976, pp.285-294. 이하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일본 민담의 사례는 필자가 번역하였으며, 원문은 부록을 참조 바란다.

할아버지는 개의 등에 안장을 엮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안장 위에 가마니를 달아 주세요.’

‘가마나라니?, 네가 가여워서 달아줄 수가 없어.’

‘괜찮으니까 달아주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마니를 달아주자,

‘할아버지 가마니 옆에 썰이를 매어 주세요.’

‘썰이라니?, 네가 가여워서 매어줄 수 없어.’

‘괜찮으니까 매어 주세요.’

그래서 썰이를 매어 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제 뒤를 따라오세요.’

그렇게 말하고 개는 산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산 속 깊이 가자,

‘자, 할아버지 여기를 파 보세요.’

할아버지는 개의 등 위의 썰이와 가마니를 내려서 개가 말하는 대로 쑥쑥 파습니다. 그랬더니 어찌된 일인지 그 속에서 큰 금화, 작은 금화 등의 보물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보물을 가마니 안에 넣어 제 등 위에 엮어 주세요.’

‘등 위에 엮으라니? 이 무거운 것을, 가여워서 엮을 수 없어.’

‘괜찮으니까 엮어 주세요.’

할 수 없이 할아버지가 가마니를 개 등 위에 올려주자, 또 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 등에 타세요.’

‘타라니?, 네가 가여워서 탈 수 없어.’

‘괜찮으니까 타세요.’

할 수 없이 할아버지는 개 등 위에 올라타자, 개는 힘차게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가마니를 열고 할머니와 둘이서 큰 금화, 작은 금화를 꺼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 할머니가

‘저 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에 넣어놓은 많은 보물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당신네 집은 돈 한 푼도 없이 가난하다고 들었는데, 이 많은 돈과 보물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

하고 이상해 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 있었던 여러 일들을 처음부터 끝

까지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웃 할머니는

‘그렇게 좋은 개라면, 우리에게도 하루만 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억지로 개를 잡아끌어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의 일이었습니다. 개는 이웃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에게 가마니를 얹어 주세요.’

그러자 욕심쟁이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 너에게 가마니를 얹어 주라고 빌려다 놓았지.’

그러자 또 개가

‘가마니 옆에 꿩이를 달아 주세요.’

‘알고 있어, 꿩이를 달아 주려고 너를 빌려 왔지.’

할아버지는 말을 계속하며,

‘자, 산으로 가자.’

라고 하며, 내몰 듯이 하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개는 산에 올라가자 한 곳에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를 파세요.’

할아버지는 매우 기뻐하며 쭉쭉 꿩이를 치켜들고 땅을 파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땅속에서 나온 것은 뱀, 개구리, 지네, 그리마, 개미 등 온갖 징그러운 것 들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이 녀석, 어찌 이런 곳을 파라고 했느냐?’

하고는 꿩이로 개를 힘껏 내리쳐 죽여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구덩이를 파서 개를 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옆에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 꽂아두고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는 욕심쟁이 할머니가 이제 곧 가마니 가득 큰 금화, 작은 금화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 할아버지가 별정계 달아오른 얼굴을 하고 개도 데려오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자,

‘어찌된 일이긴, 그 개가 말한 곳을 파보았더니 나온 것은 뱀, 개구리, 지네, 그리마, 뿐이었어, 화가 나서 개를 때려 죽여 묻어 두었지.’

그런데 그 다음날의 일이었습니다. 이웃의 정직한 할아버지 집에서는 도무지 개가 돌아오지 않아서 이웃 욕심쟁이 할아버지 집에 물으러 갔습니다. 그러자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개가 너무 심한 짓을 해서 죽여서 땅에 파묻고 왔어. 옆에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 주었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직한 할아버지는

‘저런, 몹쓸 짓을 했어.’

라고 하며 곧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꽂혀 있는 곳을 찾아가니 어제 꽂은 작은 버드나무 가지가 벌써 커다란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여운 개의 유품이라 여겨 그것을 꺾어서 떡을 찢는 절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절구로 떡을 찢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떡이 어느 틈엔가 큰 금화, 작은 금화, 여러 가지 보물이 되었습니다. 때 마침 그 때 또 이웃집 욕심쟁이 할머니가 불을 빌리러 왔습니다. 많은 보물을 보자 욕심쟁이 할머니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에요?’

하고 물었기 때문에 정직한 할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듣자 또 욕심쟁이 할머니는,

‘그렇다면 우리 집에 그 절구를 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벌써 그 절구를 돌려메고 갖고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욕심쟁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곧바로 준비를 하여 둘이서 떡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또 큰일이 났습니다. 떡은 말뚝, 쇠뚝, 개뚝... 마치 더러운 것 투성이로 되어 버렸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몹시 화를 내고 도끼를 꺼내 그 절구를 산산조각으로 박살내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의 일이었습니다. 정직한 할아버지가 욕심쟁이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그 절구를 돌려주세요.’

‘안됐지만, 그것은 너무 화가 나서 이로리(熾)에 불을 지피 태워버렸어.’

‘너무 아까운 짓을 했구만. 그렇다면 그 재라도 갖고 갈 수 있겠어요?’

‘그 재라면 이로리 구석 쪽에 있으니 얼마든지 가져가시오.’

정직한 할아버지는 그 재를 접시에 담아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그 재가 마른 나뭇가지에 끼어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른 나뭇가지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 참 이상한 일이로군.’

하며 놀란 할아버지는 마른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 재를 조금 끼얹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근방이 금세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때 토노사마

(殿様)의 행렬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른 나무에 올라가 있는 할아버지를 본 토노사마는,

‘이것이야말로 일본에서 제일가는 꽃 잘 피우는 노인이로군. 한 번 더 꽃을 피우게 보시게.’

그래서 또 할아버지는 약간의 재를 마른 나무 위에 끼얹었습니다. 곧 또 다시 활짝 아름다운 꽃이 화려하게 피었습니다. 토노사마는

‘정말이지 일본에서 제일가는 꽃 잘 피우는 노인이로군.’

라며 거듭 거듭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으로 많은 돈을 할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가 할머니에게 그 돈을 보이고 들어서 그것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또 거기에 이웃의 욕심 많은 할머니가 왔습니다.

‘어찌된 일이에요. 그 돈은?...’

할아버지는 조금 전 재를 뿌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욕심쟁이 할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즉시 할아버지에게 이로리에 모아둔 재를 갖고 마른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일본 제일의 꽃 잘 피우는 노인’

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에 올라가 가져온 재를 듬뿍 마른 나무 위에 뿌렸습니다. 그렇지만 꽃은 하나도 피지 않고 그 대신에 재가 토노사마와 신하들의 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토노사마는 대단히 화가 나서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여러 번 사죄를 하여 겨우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욕심쟁이는 사람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 (2) <형제와 개><sup>16)</sup>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의 형제가 살고 있었다. 모친이 갑자기 병에 걸려 그 아픔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 갔다. 동생은 모친의 병환이 낫기만 한다면 아무리 험한 길일지라도 약을 찾아서 나섰다. 그러나 고생한 보람도 없이 모친은 죽었다. 동생의 슬픔은 비할 데가 없었다. 그러나 형은 슬픈 표정조차 짓지 않았다. 장례

---

16) 崔仁鶴, 『朝鮮昔話百選』, 日本放送出版協會, 1974. 일본어 원문을 비교의 편의상 필자가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식이 끝나고 나서도 동생은 자주 어머니 묘를 찾았다. 어느 날 동생이 묘에 갔더니 어느 틈엔가 한 마리의 개가 묘 있는 곳에서 동생이 오는 것을 반기며 맞이해주었다. 동생이 집에 돌아오려고 하자, 개도 따라오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집에 데리고 와서 마치 자기 친동생처럼 귀여워하며 길렀다. 개는 동생이 하는 말을 무엇이든 알아듣게 되었다.

어느 날 동생이 밭에서 보리를 파종하자, 개가 따라와서 거들었다. 마침 그 때 건너편에서 짐을 가득 짊어진 나그네 한 사람이 다가왔다. 개는 나그네를 보고 멍멍 짖었다. 나그네는 화를 내며 돌을 주워 개에게 던지려고 했다. 그것을 본 동생은 나그네 곁으로 가서,

‘이 개는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리 파종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며, 용서해 달라고 했다. 나그네는 납득하지 못하고,

‘나를 놀리는가. 나그네를 향해 짖거나 하는 개 따위는 죽여 버리는게 좋아.’

라고 말하기 때문에 남동생은,

‘그럼, 이 개가 어느 정도 멋지게 보리 파종을 거드는가를 잘 봐 주세요.’

라고 말했다. 나그네는 내기를 걸 작정으로,

만약, 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짐을 모두 줄 것이네만, 정작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작정인가?’

라고 했다. 그래서 동생은,

‘이 밭과 저쪽에 있는 소를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말하여 두 사람은 내기를 걸게 되었다. 동생이 보리 파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개는 동생의 뒤를 따라가면서 네발로 흙을 밟아갔다. 그 모양은 인간의 작업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나그네는 내기에 졌기 때문에 팔러 가던 소를 모두 내놓게 되었다.

동생은 그리고 나서 점차로 부자가 되어 갔다. 형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동생의 집에 찾아와서 개를 빌려갔다. 밭에서 보리 파종을 하고 있으니 소를 가득 짊어진 나그네가 왔다. 형은 개에게 짖도록 했기 때문에 개가 짖었다. 그러자 나그네는 돌을 던지려고 했다. 형은 동생이 했던 대로 말을 걸었지만 이상하게도 개는 조금도 거들어 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형은 밭과 소를 나그네에게 빼앗겨 버렸다. 형은 화를 내며 개를 죽여 버렸다. 동생은 죽은 개를 정성을 다해 장사지내 주었다. 그러자 그 무덤에서 나무가 돋아나 이윽고 하늘까지 닿게 되었다. 그 나무에서 보물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동생은 더욱 부자

가 되었다. 형은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죽은 개를 파내어 자기 집 뜰에 묻고, 그 무덤에 나무를 심었다. 나무는 성장하여 하늘까지 닿게 되었다. 이번에는 돌맹이와 흙이 쏟아져 내렸다. 그 돌맹이와 흙의 힘 때문에 형의 집은 부서져 버렸다.

위의 두 인용 민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사건을 발단과 전개 및 결말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花咲爺> 이야기

- ① 발단: 할아버지 → 산 → 나무 → 할머니 → 냇가 → 빨래 → 복숭아 → 절구 속에 둥 → 강아지가 나옴 → 소중히 키움
- ② 전개: 할아버지와 개 → 안장, 가마니, 꿩이를 매어 달라고 함 → 산 → 개가 지목한 곳 파보니, 금화, 보물이 나옴 → 이웃 할머니 불 빌리러 옴 → 보물보고, 개를 무리하게 데리고 감 → 이웃집 할아버지와 개 → 안장, 가마니, 꿩이 순순히 매어줌 → 산 → 파보니, 뱀 개구리, 지네, 그리마, 등 나옴 → 개를 죽임 → 버드나무 꽃아둑  
할아버지 산에 감 → 버드나무로 절구 만듦 → 떡을 찌자, 금화, 보물이 나옴 → 이웃집 할머니 불 빌리러 옴 → 절구 가져감 → 떡을 찌자, 말뚝, 쇠뚝, 개뚝이 됨 → 이웃집 할아버지 절구 박살내 태워버림
- ③ 결말: 할아버지 재를 가져옴 → 재를 마른 나뭇가지에 끼었으니 꽃이 피름 → 토노사마가 봄 → 꽃 잘피우는 노인이라고 칭찬 받고, 포상도 받음 → 이웃집 할아버지 → 재를 마른 나무에 뿌렸지만, 꽃 피지 않음 → 재가 토노사마 눈에 들어가 심하게 혼남

#### <형제와 개> 이야기

- ① 발단: 형제와 어머니 → 동생은 효성 지극 → 어머니의 죽음 → 동생 자주 묘에 찾아감 → 묘에서 개 발견 → 데려와 키움
- ② 전개: 밭에서 보리 파종 → 개도 거들어 줌 → 숨장수와 내기 → 개 덕에 내기 이김 → 부자 됨
- 형이 개를 데려감 → 내기를 하여 짐 → 개를 죽임
- ③ 결말: 동생 → 개를 장사 지내 줌 → 무덤에서 나무 돋음 → 하늘에 닿음 → 보물 쏟아짐
- 형 → 죽은 개 파냄 → 집 뜰에 묻고 나무 심음 → 하늘에 닿음 → 돌맹이, 흙 쏟아짐

상기 요약을 바탕으로 두 이야기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분류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     |                                                                             |
|-----|-----------------------------------------------------------------------------|
| 공통점 | 개가 출현한다.                                                                    |
|     | 개 덕분에 주인공이 부(富)를 얻게 된다.                                                     |
|     | 선한자와 악한자가 등장한다.                                                             |
|     | 개는 악한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                                                        |
|     | 개는 사후에 나무가 되며, 이 나무로 인해 주인공은 더 큰 부를 얻게된다.                                   |
| 상이점 | 일본의 경우에는 이웃간의 갈등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형제간의 갈등으로 되어 있다.                        |
|     | 개의 출현은 일본의 경우에는 냇가의 복숭아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묘에서 나타났다.                          |
|     | 개의 기묘한 행동은 일본의 경우에는 주인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땅을 파라고 한 것인데, 한국의 경우는 주인을 도와 밭을 가는것이다.   |
|     | 개가 사후에, 일본의 경우에는 무덤에서 자란 나무를 잘라 절구를 만들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무덤에서 나무가 자라 하늘까지 닿게 된다. |
|     | 일본은 개의 사후, 절구와 재(灰)에 관한 이야기가 덧붙여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한 사건으로 끝이 난다.                |

위와 같은 비교를 통해 양국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우선 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이야기는 개의 기묘한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흐름은 갈등의 연속이고 인과응보(因果応報)와 권선징악(勸善懲惡)적인 결론으로 되어 있다. 양국의 민담에는 인과응보라는 불교적인 세계관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한·일 모두 불교를 받아들여 일반화 된 것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의 심성은 많이 다르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일본의 <花咲爺> 이야기에서도 개가 등장하고, 한국의 <형제와 개> 이야기에서도 개가 등장한다. 양국의 이야기에서는 공통적으로 개가 등장한

다. 일본의 <花咲爺>에서는 할머니가 빨래를 하러 갔다가 냇가에서 복숭아를 주워 와서 절구 속에 넣어 두었는데, 나무하러 갔다 돌아온 배고픈 할아버지가 복숭아를 먹으려하자 복숭아가 개로 변해 있었다. 한국의 <형제와 개>에서는 형제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마음씨 착한 동생이 어머니 묘에 갔다가 개 한 마리 있어 데리고 오게 된다.

일본의 <花咲爺>에서는 할머니가 냇가에서 주워온 복숭아에서 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복숭아를 던져 악령을 물리쳤다는 설화도 있듯이 일본에서는 고대부터 복숭아에는 어떤 주력이 있다고 믿어 왔기 때문에, 다른 과일이 아니라 복숭아에서 개를 탄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의 <형제와 개>에서는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던 착한 동생이, 무덤 근처에 있던 개를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데리고 온 것인데, 무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된 개였더라면 데려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무덤에서 발견되는 개를 어머니의 화신(化身)이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동생이 무덤에서 데려 온 개는 어머니의 전생(轉生)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이 죽어서 동물로 전생하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로는 강아지, 나비, 구렁이, 두더지, 물고기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민족의 사생관, 인생관과 관련하여 삼생사상(三生思想)<sup>17)</sup>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양국의 이야기에 개라는 동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양국의 이야기의 개는 전생하는 동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의 <花咲爺>의 개는 복숭아에서 등장하고, 한국의 <형제와 개>의 개는 무덤에서 발견되는 차이를 보이지만, 양국 모두 전생을 믿었기 때문에 개를 전생하는 동물로 후세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이미지로 민담에 등장시키지 않았나 생각한다.

17) 불교에서 전생(前生), 금생(今生), 후생(後生)을 이르는 말

한국의 이야기에서는 무덤에서 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일본의 일부 섬에서는 오히려 묘지 때문에 개를 기르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사체를 매장하지 않고 비바람에 썩혀, 뼈만 독에 넣어 안치하기 때문에 개에 의해 사체가 훼손될까봐 염려해서라고 한다.

양국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출현한 개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인간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다시 죽어서 다른 형태로 재생하여 역시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온다. <花咲爺>의 경우에는 주인을 산에 데려가서 보물 있는 곳을 파게 하여 부를 얻게 한다. 또 개가 죽은 후에도 복을 가져다 주는 기묘한 일은 계속 되는데, 죽어서 커다란 나무로 자라 절구를 만듦으로써 재물을 얻게 하고, 절구를 태운 재를 마른 나무에 뿌려 꽃을 피게 하여, 큰 부자가 되게 해 준다. <형제와 개>의 경우에는 동생이 보리 파종을 하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와 내기를 하게 되었는데, 개가 밭을 갈아 준 덕분에 부를 얻게 되었다. 개가 죽은 후에는 무덤에서 나무가 자라 하늘까지 닿아 보물이 쏟아져, 주인을 더욱 부자가 되게 만들어 준다.

여기서 개라는 동물은 인간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동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가축으로서의 개가 아니라, 개가 인간에게 있어서 초자연적인 힘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형제와 개>에서 개가 주인의 보리파종을 도와 밭을 간다는 장면을 보면 개는 농경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花咲爺>에서는 ‘산’이라는 장소가 나오지만, <花咲爺> 이야기 중에도 ‘밭’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 좋은 할아버지와 이웃에 나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좋은 할아버지는 한 마리의 개를 키우며 귀여워해 주었다. 그 개가 어느 날 뒷밭에

서 멍멍 짖었다. 너무나 짖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상히 생각하면서 그곳을 파보니까 보물이 많이 나왔다. 이것을 본 이웃 할아버지는 보물이 욕심이 나서 좋은 할아버지에게 와서 '개를 빌려 주십시오.' 했다. 좋은 할아버지는 무척 귀여운 개이기 때문에 빌려 줄 수 없다고 하자, 나쁜 할아버지는 '제발 한번만 빌려 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므로 '그렇담 빌려드리지요.' 하고 빌려 주었다.……」

(勝田市東中根에서 崔仁鶴씨가 채집한 「花咲爺」 중에서, 1974년 7월 5일)

이것을 보면, 일본의 개 역시 농경문화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고대 중국에서 인류에게 곡물을 갖게 해 준 것이 개였으며, 개를 희생의 제물로 하는 농경의례(農耕儀禮)에 관한 민속 등의 사상에서 이러한 모티브가 생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개라는 동물은 민담 속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동물 빈도수 조사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이 빈도수 조사가 어떤 서적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라는 동물이 다른 동물로 변형되어 민담 속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개가 비슷한 다른 동물이었다는 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이리, 늑대, 들개가 개의 조상이었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생식상태나 구조, 임신기간이 동일하며, 또 한 마리가 짖으면 여러 마리가 같이 짖는 습성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sup>18)</sup>

개가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개가 불을 꺼서 주인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술에 취한 주인이 산길이나 들길을 가다가 잠이 들었을 때 우연히 불이 났는데, 주인의 생명에 위협을 받자 주인 곁에 있

18) 李亨雨, 「韓國의 動物說話 研究」, 公州大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3, p.9

던 개가 근처 하천이나 연못에 물을 몸에 적셔서 주인의 곁에 뿌리기를 여러번 반복하여 불을 끈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자는 주인은 개가 불에 타서 죽게 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 그때야 비로소 개 때문에 살아난 것을 알고, 개의 충성심과 의리에 고마움을 느끼고 개를 더욱 사랑하게 되어, 개가 죽은 후 무덤까지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이다.

개는 매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지만, 특히 위의 이야기에서처럼 충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유교적인 충효사상과 관계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또 ‘개·고양이·보물’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犬猫争珠’에서도 개가 등장하는데, 먼저 한국의 민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난한 어부가 잉어를 잡았다가 놓아주는데, 후에 보니 그 잉어가 용왕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 구슬을 선물 받게 되고, 큰 부자가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나쁜 노파가 방물 장수로 분장을 해서 구슬을 훔쳐간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가 주인에게 신세를 갚으려고 구슬을 찾아 나선다. 쥐의 협력으로 구슬을 찾아 돌아오는데, 개 등에 탄 고양이가 말을 걸어, 개는 입에 문 구슬을 떨어뜨린다. 개는 힘없이 돌아오는데, 고양이는 끈질기게 해협치 구슬을 찾아서 돌아온다. 어부는 기뻐하며, 고양이에게는 방 출입을 허락하고 개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 이후로 개는 고양이를 미워하게 되었다.」<sup>19)</sup>

일본 민담의 내용도 한국 민담의 내용과 구성은 매우 비슷하나 소재면에서 조금 다르다. 살펴보면, 사경을 헤매던 강아지를 노인이 사 가지고 와 고양이와 함께 기른다. 어느 날 노인이 백사(白蛇) 새끼를 발견해서 기르다

---

19) 孫晋泰, 『朝鮮の民話』, pp.192-198, 三 <犬と猫と珠>

가 놓아준다. 백사의 뒤를 따라간 끝에 비늘 구슬을 얻게 되는데, 이것으로 큰 부자가 되고 옷가게를 차려 번창한다. 그러나 가게 우두머리가 구슬을 훔쳐간다. 기르던 개와 고양이가 쥐와 협력하여 구슬을 되찾아 온다. 구슬을 문 고양이가 여우와 장난치다가 구슬을 물 속에 빠뜨린다. 기운 빠진 개와 고양이는 생선을 훔쳐서 돌아온다. 주인이 생선의 배를 가르니 구슬이 나왔다.

한국의 이야기에서는 개와 고양이가 사이가 나빠진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는 주인에게 신세를 갚기 위해서, 구슬을 찾아 나서는 인간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의리있는 동물로 그려지고 있다.

일본의 이야기에서는 한국처럼 어떤 유래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개와 고양이가 나란히 주인의 구슬을 찾아 은혜를 갚는데, 여기서의 개도 인간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그려지고 있다. 양국 민담은 모두 인간의 은혜에 보답하는 동물들의 이야기로, 동물 보은담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민담에서 복을 가져다 주는 동물로는 주로 용, 뱀, 거북이, 사슴, 개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복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는 <형제와 개> 이 외에 <단똥과 떡나무와 생명나팔>이 있는데,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곳에 부자가 있었으나 점점 가난해져서 끝내 감나무 한 그루와 나팔 한 개와 강아지 한 마리가 남았다. 어느 날 산에서 벌꿀을 발견하여 집에 갖다 왔더니, 강아지가 그것을 먹고 꿀과 같은 단똥을 누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고가(高價)로 이것을 사갔다. ……」<sup>20)</sup>

한국에서는 개가 언제부터 있어 왔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일본에서는 고

---

20) 鄭寅燮, 『溫突夜話』, 日本書院, 1927, pp.145-158

대 縄文式 토기가 발굴되는 조개 무덤에서 개의 골격이 발견되어 석기시대부터 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개는 일반적으로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며, 집을 지키는 수호신적인 기능도 해왔다. 특히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동물이라고 하여 충견이라는 명칭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개는 오랜 세월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동물이다. 이러한 개는 미물이기는 하지만 설화 속에서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는 상징적인 존재물로 부각되어 있다. 물론 이처럼 전형적인 충(忠)의 실천적인 동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속담 속에서는 개라는 말을 통해 인간의 그릇된 성질을 빈정거릴 때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도 개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은 친근한 동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일반적인 민속에서 개와 속신(俗信)에 관한 것을 보면, 개는 비교적 출산을 수월하게 한다고 하여 개가 출산과 관계가 있다고 믿었다.

개라는 동물은 언제부턴가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었고,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었다. 양국의 민담 속에서 개는 인간에게 충성을 다하고 복을 가져다 주는 의리 있는 동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처럼 친근한 개를 단순히 가축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는 영(靈)적인 동물로 인식해서 민담에 등장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舌切雀>와 <홍부와 놀부>

일본의 <舌切雀>와 한국의 <홍부와 놀부>에서는 새를 통해서 노부부간 혹은 형제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우선 양국의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舌切雀><sup>21)</sup>

옛날, 옛날의 일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하러, 할머니는 냇가에 빨래하러 갔습니다.

산에 갔던 할아버지가 도시락을 나뭇가지에 매달아 두자, 참새가 날아와서 그 도시락을 먹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점심을 먹으려고 생각하고, 도시락을 펼쳐보니, 안에서 한 마리의 참새가 쿵쿨, 쿵쿨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할아버지는 배고픈 것도 잊고, 너무 귀여워서 그래도 보자기에 싸서 집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おちゃん이라고 붙이고, おちゃん, おちゃん 하며 귀여워하며 키웠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참새를 집에 두고 산에 나무하러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냇가에 빨래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おちゃん, おちゃん, 여기에 김을 둘 테니까, 옆집 고양이가 오지 못하도록 잘 지켜라.’

그렇게 참새에게 말하고 냇가에 나갔습니다.

おちゃん 참새는 오랫동안 더 있었다니, 배가 고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한 입 그 김을 먹어버렸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마침내 한 입 더, 또 한 입 더 하는 동안에, 드디어 모두 먹어 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와서,

‘おちゃん, おちゃん, 다녀왔다. 김을 잘 지키고 있었구나.’

그러자 おちゃん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김은 제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옆집 고양이가 와서 훔아먹어버렸어.’

할머니는 화가 나서 옆집 고양이를 붙잡아,

‘이봐, 고양이, 우리 김을 훔아먹었지.’

21) 坪田譲治, 『日本むかしばなし集 (三)』, 東京 新潮社, 1976, pp.264-272

그렇게 말하고, 입을 보았더니, 어디에도 김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염을 보아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코를 보아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상하군.’

라고 생각하고 할머니는 おちゃん을 붙잡아 억지로 입을 열게 해, 안을 보니 おちゃんの 혀에 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했구나. 김을 먹은 것은 너잖아. 뽀뽀스러운 참새 같으니.’

그렇게 말하자마자, 할머니는 가위를 가지고 와서, 참새의 혀를 싹둑 잘라 버렸습니다. おちゃんは

‘아파, 아파.’

라고 울며 소리치면서, 산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후, 곧, 할아버지가 나무를 지고 돌아왔습니다.

‘할멈, 지금 돌아왔어, おちゃんは 어떻게 됐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김을 만들어 두고, 냇가에 빨래하러 갔다 온 사이에, おちゃんが 그 김을 먹어버렸어. 게다가 옆집 고양이가 먹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나 おちゃんの 혀를 잘라 버렸어.’

이것은 들은 할아버지는

‘아, 몸쓸 짓을 했군. 이제부터 나는 おちゃん을 찾아서 집에 데려 올거야.’

그렇게 말하고 곧 나가 버렸습니다.

おちゃん 참새는 어디로 갔나, 혀 잘린 참새는 어디로 갔나, 아 불쌍하구나, 아 불쌍하구나.

이렇게 노래하면서, 참새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참 걸어가니 소 씻는이가 소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소 씻는이여, 소 씻는이여, 여기로 혀 잘린 참새가 지나가지 않았소.’

‘지나갔지, 지나갔지, 지나가긴 지나갔지만, 소의 발을 12번 씻어 주지 않으면 가르쳐 주지 않겠소.’

할아버지는, 거기에 있는 소의 발을 침병 침병, 침병 침병, 끼얹어,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

그러자 소 씻는 이가 말했습니다.

‘이 냇가를 내려가면 말 씻는 이가 있을 테니까, 말 씻는 이에게 물어보면 되지.’

그래서 또, 할아버지는

‘혀 잘린 참새는 어디로 갔나, おちゃん 참새는 어디로 갔나, 아 불쌍하다, 아 불쌍하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냇가를 따라 내려가니, 말 씻는 이가 말을 씻고 있었습니다.

‘말씨는 이여, 말 씻는 이여, 여기로 혀 잘린 참새가 지나가지 않았소.’

‘지나갔지, 지나갔어, 지나가긴 지나갔지만, 말의 발을 24번 씻어 주지 않으면 가르쳐 주지

않겠소.’

할아버지는 또 말의 발을 24번, 썉썉 물을 끼얹어,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말 씻는 이가 말했습니다.

‘이 냇가를 내려가면, 나물 씻는 이가 있을 테니까, 그 나물 씻는 이에게 물어보면 되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또,

‘おちゃん 참새는 어디로 갔나, 혀 잘린 참새는 어디로 갔나, 아 불쌍하다, 아 불쌍하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내려가니, 나물 씻는 이가 있었습니다.

‘나물 씻는 이여, 나물 씻는 이여, 여기로 혀 잘린 참새가 지나가지 않았소.’

‘지나갔지, 지나갔어, 지나가긴 지나갔지만, 나물을 48바구니 씻어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겠어.’

그래서 또 할아버지는, 나물에 썉썉 물을 끼얹어, 48바구니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물 씻는 이가 말했습니다.

‘이 냇가를 내려가면, 크디 큰 대나무 숲이 있소. 거기에 가면, 빨간 앞치마를 하고, 빨간 뽕빵을 하고, 벼를 베고 있는 자가 있소. 그것이 혀 팔린 참새이다.’

할아버지는 또,

‘혀 잘린 참새는 어디로 갔나, おちゃん 참새는 어디로 갔나, 아 불쌍하다, 아 불쌍하다.’

라고, 노래하면서 냇가를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큰 대나무 숲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보았더니, 집이 있었습니다. 푹푹 하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할아버지예요? 할머니예요?’ 라고 물었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라면 어서 들어와요.’

할아버지가 집안에 들어가니, 참새들이 모여와서

‘할아버지,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진수성찬을 내어 대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럼 이제 돌아가야지.’

라고 말하자 참새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선물은 무거운 고리짝이 좋습니까? 가벼운 고리짝이 좋습니까?’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가장 가벼운 것을 받고 싶어.’

그러자 참새는 할아버지에게 가벼운 고리짝을 메게 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결코, 도중에 열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 들어가서 방안에서 열어 보세요.’

‘고마워, 고마워.’

할아버지는 고리짝을 등에 메고, 영차 영차 지팡이를 잡고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고리짝을 열어보니, 안에는 금화와 보물이 가득 했습니다.

‘와아’

라고 하며,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욕심 많은 할머니도,

‘나도 하나 받아 와야지.’

그렇게 말하고,

‘혀 잘린 참새는 어디로 갔나, おちゃん 참새는 어디로 갔나, 아 불쌍하다, 아 불쌍하다.’

라고 노래하면서, 냇가를 내려갔습니다. 이윽고 큰 대나무 숲에 다다라, 혀 잘린 참새의 집 문을 푹푹 푹푹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예요? 할머니예요?’

‘할머니야, 할머니야.’

‘할머니면, 어서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들어가니, 참새들은 변 소문을 갖고 와서 소반으로 하고, 울타리 나무를 잘라 와서 젓가락으로 하고, 하천의 모래를 밥으로 해서

‘자아, 할머니 드세요.’

라고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가 돌아가려고 하자, 참새가 물었습니다.

‘선물은 무거운 고리짝이 좋습니까? 가벼운 고리짝이 좋습니까?’  
 할머니는 욕심쟁이 이기 때문에  
 ‘무거운 고리짝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메고, 도중에서 절대 열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방에서 열어 보세요.’  
 너무 무거운 고리짝을 할머니의 등에 메어 주었습니다.  
 ‘이영차, 이영차.’  
 할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보물이 가득 들어있다고 기뻐 서둘러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안이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 집의 울타리 옆까지 오자, 영차,  
 고리짝을 내리고, 뚜껑을 열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꿈틀 꿈틀, 줄줄, 뱀과 살무사와 지네, 그리마 그러한 것만이 뒤에서 뒤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몹시 몰라, 고리짝을 내버려두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2) <홍부와 놀부><sup>22)</sup>

옛날 홍부와 놀부라고 하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의 이름은 놀부, 동생의 이름은 홍부였다. 형은 매우 부자이면서 욕심 많고 심술궂은 사람으로서 매우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어찌된 셈인지 운이 따르지 않아 처와 자식들은 하루도 배고픔을 채우지 못한 채 가엾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글썽 제비 둥지가 한 마리의 뱀에게 습격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제비들은 차례 차례로 잡아먹혔지만, 그 중에 단 한 마리의 새끼 제비만이 천신만고 끝에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목숨은 건졌지만 도망칠 때 발(簾)에 다리가 걸려 떨어졌기 때문에 새끼 제비는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 이것을 보고 홍부는 약을 가져다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22) 崔仁鶴, 『朝鮮昔話百選』, 日本放送出版協會, 1974. 일본어 원문을 비교의 편의상 필자가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살을 때어 주어 살짝 제비둥지 안에 넣어 주었다.

이윽고 구월구일도 지나 제비들은 자신들이 거울을 지내는 강남으로 날아갔다. 다리를 부러뜨린 홍부네 집의 제비도 완전히 나아서 기운차게 날아갔다. 그러던 중 겨울이 지나고 삼월삼일이 왔다. 강남에 갔던 제비들은 봄과 더불어 다시 날아왔다. 홍부의 집에도 역시 전에 다리를 치료해 준 그 제비가 기쁜 듯이 소리를 내면서 찾아왔다. 홍부는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홍부 집에 날아온 제비는 박씨 하나 떨어뜨렸다. 홍부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 박씨를 주워 뜰 앞의 울타리 밑에 심어 두었다.

며칠이 지나자 싹이 텄다. 새싹은 금방 무럭무럭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어 급기야는 커다란 박이 다섯 개나 열렸다. 홍부는 매우 이상한 박이라고 여기면서 처와 함께 의논을 하였다.

‘저 박은 보통의 것보다 몇 배나 큰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갈라보지 않으려오.’

라고 하면서 그 중의 하나를 따와서 톱으로 커서 잘라 보았다. 그러자 쌀이 나오기 시작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커다란 항아리 5개에 가득 넣었지만, 아직도 석 섬 정도 남았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개의 박을 커서 잘라보니, 이번에는 돈이 산 만큼 쏟아졌다. 홍부 부부는 기뻐서 춤추고 노래했다. 세 번째의 박을 가져다가 톱으로 잘라보니, 이번에는 아름다운 선녀가 나타나서 남아있는 두 개의 박을 향해,

‘나오너라. 붉고 푸른 마법의 병이여.’

라고 명하니, 한 개의 박이 굴러 나와 자연히 두 개로 쪼개져 그 속에서 붉은 병이 나타나서,

‘예, 대령했사옵니다.’

라고 하자, 또 남은 하나의 박도 마찬가지로 쪼개지자 푸른 병이 나타났다.

‘그럼, 이제부터 너희들은 여기에 커다란 집을 세우렸다.’

하고 명하자, 붉은 병에서는 많은 목수들이 나타나고, 푸른 병에서는 많은 재목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훌륭한 집을 세우고 나자 원래의 병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선녀도 흰 연기를 내면서 푸른 병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나서, 홍부는 유명한 부자가 되어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욕심 많은 형인 늘부는 이 소문을 듣자 곧바로 찾아왔다.

‘너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마치 꿈 같군. 어서

그 까닭을 말해 봐.’

하고 졸랐다. 흥부는 제비 다리를 고쳐준 이야기부터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놀부는 돌아와서 크게 한 번 벌해보리라고 걱정하고 곧바로 길의 대들보에 제비집을 만들어서 제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에 운 나쁜 제비가 한 마리 날아들어 새끼를 낳게 되었다. 이윽고 놀부는 제비 새끼를 한 마리 등지에서 꺼내서 억지로 그 다리를 부러뜨려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그 위에 실로 칭칭 매어 제비 등지에 넣어 두었다.

또 겨울이 지났다. 놀부 집에 있던 제비가 봄과 함께 찾아들어 기다리고 있던 놀부 앞에 박씨를 하나 떨어뜨렸다. 놀부는 곧바로 그것을 심었더니 역시 흥부가 말한 대로였다. 어느 날 놀부는 그 박을 가져다가 쪼개어 봤다. 그런데 그 박속에서는 도깨비들이 손에, 손에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서,

‘이 욕심 많은 놈. 너를 혼을 내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인정 사정없이 두들겨 뺐다.

그리고 도깨비들은 사라져 버렸다. 죽을 만큼 두들겨 맞은 놀부는 다른 박 속에는 금은보화가 들어 있음이 틀림없다고 여기고 또 하나 가져다가 쪼개어 봤다. 그러자 이번에는 빗쟁이들이 몇 명이나 나타나서,

‘돈 내. 빌린 돈을 갚아. 그렇지 않으면 닥치는 대로 가져가겠다.’

라고 위협하면서 정말이지 무엇이든지 마구 가져가 버렸다. 놀부 집은 순식간에 무일푼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놀부는 남은 박에서 보물이 나오기만 하면하고 여기면서 세 번째 박을 가져다가 쪼개어 봤다. 그러자 박 속에서는 어떤 일인지 냄새가 지독하게 썩은 물이 나오기 시작해 눈 깜짝 할 사이에 놀부네 집은 더러운 물바다가 되어 버렸다. 고집이 센 놀부도 여기까지 이르자 참지 못하고,

‘동생아, 날 좀 도와줘.’하고 외치면서 흥부 집으로 달려갔다. 인정 많은 동생은 가여운 듯이 형을 친절하게 맞이했다. 욕심 많은 형도 자심의 나쁜 짓을 깊이 반성하여 그 후부터는 대단히 겸허한 사람이 되었다. 흥부는 자기 재산의 반을 놀부에게 나눠줘 두 형제는 사이좋고 행복하게 살았다.

인용 원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각각 사건을 발단과 전개 및 결말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舌切雀> 이야기

① 발단 : 할머니 → 냇가 → 빨래

할아버지 → 산 → 나무 → 참새 도시락 먹고, 그 안에서 잠  
들어 버림 → 귀여워하며 키움

② 전개 : 할아버지 → 산 → 나무

할머니와 참새 → 할머니 빨래 → 참새에게 김을 지키라고  
함 → 배고파서 먹어 버림 → 옆집 고양이가 먹었다고 함 →  
김도 먹고, 거짓말까지 한 것 알고 참새 혀를 잘라 버림  
할아버지 → 참새 찾아 나섬 → 소 씻는 이, 말 씻는 이,  
나물 씻는 이를 차례로 만남 → 부탁하는 일을 해주고 참새  
가 있는 곳 알아냄 → 큰 대나무 숲 참새 집 → 참새에게 진  
수성찬 대접 받음 → 선물로 가벼운 고리짝 선택 → 참새의  
말대로 집에 돌아가 열어보니 금화, 보물 가득

③ 결말 : 욕심쟁이 할머니 따라함 → 큰 대나무 숲 참새 집 → 변소  
문으로 소반을, 울타리 나무로 젓가락을, 모래로 밥을 해서  
대접 → 무거운 고리짝 선물로 선택 → 참새 말 듣지 않고  
집에 오기전에 열어 봄 → 징그러운 동물 가득

#### <홍부와 놀부> 이야기

① 발단 : 형제 → 형 놀부는 욕심 많고 부자, 동생 홍부는 착하지만 가  
난 하였음

어느 날 홍부집 → 제비 둥지를 뱀이 습격 → 제비 한 마리  
만 겨우 살아 났지만 다리 부러짐

② 전개 : 홍부가 상처난 제비새끼 치료해줌 → 다음해 봄 박씨 한 개  
얻음 → 심었더니 박 열림 → 박을 타보니 쌀, 돈, 보물이 나  
와 부자됨

③ 결말: 소문 들은 놀부 → 제비 다리 부러뜨려 치료해줌 → 이듬해 봄 박씨 얻음 → 심었더니 박 열림 → 박을 타보니 도깨비, 빗쟁이, 온갖 더러운 것들 잔뜩 나옴 → 빈털터리 됨

위의 요약을 정리하여 양국 이야기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                                                       |
|-----|-------------------------------------------------------|
| 공통점 | 가족간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이다.                                    |
|     | 동물의 보은에 관한 이야기이다.                                     |
|     | 착한자는 복을 받지만, 악한자는 벌을 받게 된다는 권선징악이 잘 나타나고 있다.          |
| 상이점 | 일본의 경우에는 부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형제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
|     | 보은 동물로 일본의 경우에는 참새가 등장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제비가 등장한다.          |

일본의 <舌切雀>에서는 참새, 한국의 <홍부와 놀부>에서는 제비라는 동물을 통해서 노부부간 혹은 형제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양국의 민담에서는 착한자는 복을 받고, 악한자는 벌을 받는다는 전형적인 민담의 특징인 권선징악이 강조되고 있다.

양국 민담에서는 주인공과 이야기를 이끌어 갈 동물이 등장하는데, 일본의 <舌切雀>에서는 참새가 등장하고, 한국의 <홍부와 놀부>에서는 제비가 등장한다. 동물의 등장 부분을 살펴보면, 일본의 <舌切雀>에서는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점심 때 도시락을 먹으려 하자, 도시락을 다 먹고 그 안에서 잠들어 버린 참새가 발견된다. 한국의 <홍부와 놀부>에서

는 흥부네 집에 있던 재비 동지가 뱀의 습격을 받아, 새끼 한 마리만 상처를 입고 겨우 살아 남게 되었다. 이것을 흥부가 치료해 주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처럼 유사한 양국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참새는 텃새로 일년 내내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동물인데, 재비는 추워지면 강남으로 갔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찾아오는 철새이다. 한국에서는 처마에 재비가 둥지를 지으면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지저분해도 절대 허물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참새보다 재비라는 동물을 더 신성시하고, 그래서 민담에도 등장시키지 않았나 생각한다.

<舌切雀>와 유사한 형태인 <腰折雀> 이야기에서도 참새가 등장하는데, 내용의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할머니가 상처 입은 참새를 도와준다.
- ② 표주박 (또는 그 씨)을 3개 준다. 받은 표주박(씨를 심어서 자란다)에서 쌀, 금은, 단물(甘い水)이 나온다.
- ③ 할머니가 고의로 참새에게 상처 입힌다. 받은 표주박에서 벌, 진흙, 매운 물(辛い水), 중대加里 괴물(入道)가 나온다.<sup>23)</sup>

<舌切雀>보다 <흥부와 놀부>와 더 유사한, <腰折雀> 이야기에서도 참새가 등장한다.

설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의 빈도수를 보면, 참새는 일본에서 3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동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보잘 것 없고, 극히 적을

---

23) 崔仁鶴, 『韓日昔話の比較研究』, 三弥井書店, 1995, p.353. 편의상 필자가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것을 비유할 때 ‘참새 눈물 만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을 보면 일본인들이 참새라는 새에 대해, 그다지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이것 하나만 보고 일본인들의 참새에 대한 인식을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할 수 있지만, 이런 참새를 속담이나 민담 속에 등장시키는 것은 그 새를 친근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양국의 민담은 새라는 동물이 착한자에게 도움을 받고, 그것에 보답하는 이야기로 동물보은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동물 보은담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새도 자주 등장한다. 그러면, 민담에서 새는 어떤 의미로 등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어디든지 맘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를 가진 새는 인간에게 무한한 동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동경은 그 새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숭배하게 된 것이다. 이 날개는 시공(時空)을 극복하는 영웅의 신비한 힘이 나오는 근원이며,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천신의 사자(使者) 내지 천신 자체를 새로 여겼다.<sup>24)</sup> 마을 앞에 세워 둔 솟대에도 새가 앉아 있는데, 이는 새를 조상의 영혼으로 생각하고 지상과 천상을 이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불가(佛家)에서 새는 부처의 화신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새의 신성성은 무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점을 치는 사람들은 새가 신과 교신을 한다고 생각해서 새점을 치기도 한다.

또 새는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보은하는 동물로 나타나며, 죽은 사람이 새로 환생해 살아 생전에 못 이룬 원망(願望)을 이루려는 형상으로도 나타난다. 이처럼 민담 속에서의 새는 여러 가지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 보은담에는 <흥부와 놀부>에서의 제비 이외에 까치라는 새가 종종 등장한다. 그 중 잘 알려진 이야기를 살펴보면, 선비가 우연히 까치집의 새끼들을 공격하는 뱀을 보고 새끼들을 구해주었는데, 뱀의 가족

---

24) 최내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서울), 1984, p.157

이 선비에게 복수려고 했으나 죽으면서까지 종을 올려준 까치 덕분에 선비는 살아났다는 까치가 은혜 갚은 이야기이다.

예부터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민족은 까치를 길조(吉鳥)로 여겨왔다. 그래서 민담 속에 인간에게 보은하는 동물로 까치가 자주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에 비해 일본은 한국에서 흉조로 여기는 까마귀를 길조로 여긴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까마귀를 일컬어 반포지효를 아는 효자새라고 했는데, 나이가 들면 어미에게 먹이를 가져다주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까마귀가 한국에서 흉조로 여겨지는 것은 검은색이 주는 혐오감이나 농사를 망치는 것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어느 나라에선 흉조로 여겨지는 것이 어느 나라에선 길조가 되는 것은 문화의 차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듯 하다. 그리고 생태적인 환경의 차이가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아진다.

<舌切雀>에서는 참새, <홍부와 놀부>에서는 제비를 등장시켜, 인간과 동물과의 보은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을 통해서 권선징악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양국의 새에 대한 의식과 생태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민담에서 새는 천신의 사자, 또는 천신 그 자체, 조상의 영혼, 부처의 화신, 보은·전생하는 동물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 3. <勝々山>와 <심술궂은 호랑이>

일본의 <勝々山>에서는 너구리가 등장하고, 한국의 <심술궂은 호랑이>

에서는 호랑이가 등장하여 인간에게 해를 끼쳤다가 결국은 복수를 당하게 되는데, 우선 양국의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勝々山><sup>25)</sup>

옛날, 옛날 어느 곳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보리를 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웃집 며느리로 둔갑한 너구리가 찾아왔습니다. 너구리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무얼 하고 계십니까?’

‘보리가 떨어져서 보리를 빻고 있지.’

이렇게 대답하자, 너구리가 둔갑한 이웃집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빵아 드리지요.’

할머니는 너구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면 부탁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 이웃 며느리에게 보리 빻는 일을 부탁했습니다.

‘쿵더쿵, 쿵더쿵, 쿵더쿵, 쿵더쿵.’

너구리는 보리를 빻아줍니다. 꽤 빻고 나서 너구리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리가 잘 빵아 졌는지 봐주세요.’

할머니가 절구 속을 들여다보고,

‘꽤 잘 빵아 진거 같애.’

그렇게 말하자 너구리 며느리는,

‘할머니, 좀 더 잘 봐주세요. 좀 더, 좀 더 절구 안으로 몸을 구부려 봐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예, 예. 이렇게 말입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점점 절구 속으로 머리를 처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때를 기다리고 있던 너구리가 위에서 쿵! 하고 절굿공이를 내리쳤습니다. 가엾게도 할머니는 그래서 죽어 버렸습니다. 너구리는 할머니가 죽자, 이번에는 할머니로 둔갑하여 할아

25) 坪田讓治, 『日本むかしばなし集(一)』, 東京 新潮社, 1975, pp.229-237

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할아버지는,

‘할멈, 다녀왔소.’

그렇게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밥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아 올라오세요.’

너구리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밥을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쩐지 평소의 할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겨 고개를 갇웃거렸습니다. 이것을 본 너구리는 당황하여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뒷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죽었다. 할아버지는 속았다. 나는 너구리다. 하! 하! 하! 하!’

이런 말을 반복해서 하였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속은 것을 알고,

영 영 영, 어찌 울지 않고 있을 수 있겠나. 너구리에게 속았다. 할멈이 가없다.’

그렇게 말하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토끼가 와서 이것을 들었습니다. 토끼는 할아버지가 딱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원수를 갚아줄 테니까 울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토끼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억새 벌판을 발견하고는 거기서 계속 노래를 부르며 억새를 베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 토끼의 노랫소리를 들은 너구리는 곧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토끼님, 토끼님, 그 집을 짓는데 저도 기들 테니까 끼워주지 않을까요?’

토끼는 그렇게 말하기를 기다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좋아. 그렇다면 우선 억새 베는 일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억새 베는 일을 시켰습니다. 억새를 베고 마침내 오두막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가로목을 고정 시키고 거기에 새끼줄로 억새를 엮어대는 것입니다.

‘너구리님, 당신은 안에서 바늘로 엮는 일을 도와주세요.’

토끼가 말했습니다. 밖에서 새끼를 켜 바늘을 찔러 넣으면 안에서 그것을 받아 밖으로 되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여차, 왔다. 여차, 간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완성이 다 되었을 때 안의 너구리가 알아차렸을 때에는 출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토끼님, 이거 출구가 없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토끼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그 집의 지붕 위에서 ‘치익치익’ 하고 부싯돌 커는 소리가 났습니다. 너구리는 놀라서,

‘토끼님, 토끼님, 지금 치익치익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응, 요즘 눈이 오니까 치익치익 하고 새가 우는 소리지요.’

‘그래요.’

라고 말하고 있는 사이에 토끼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불이 가장자리부터 타올라 너구리는 이 쪽으로 도망가서는,

‘아이, 뜨거워.’

저쪽으로 도망가서는

‘아이쿠, 뜨거워.’

큰 화상을 입고 겨우 그 오두막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의 일입니다. 토끼는 또 짹짹 뛰면서 등나무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노래를 부르며 등나무 덩굴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너구리는 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토끼님, 토끼님,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제 눈이 오면 나는 변소에도 갈 수 없기에 꼬리를 매고 있지요.’

하고 토끼가 말하니, 너구리는,

‘그건 그렇고 요전에 나를 속인 게 당신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끼는 화난 채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새 들판의 토끼는 억새들 판의 토끼이고, 등나무 산의 토끼는 등나무 산의 토끼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래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너구리는 등나무 덩굴로 꼬리를 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구리는 걸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고, 용변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굴러서 ‘응, 응’하는 신음소리를 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후, 겨우 등나무 덩굴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건너편 삼나무 산에서 또 토끼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삼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너구리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토끼님, 토끼님,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제 봄이 되면 바다가 조용해질 테니까, 삼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낚으러 가려고 해요.’

‘토끼님, 토끼님, 그 배 만드는 일에 나도 끼워 주세요. 그건 그렇고 언젠가 등나무 산에서 나에게 몫쓸 짓을 했었지요?’

그렇게 원망스럽게 말했습니다. 토끼는,

‘등나무 산의 토끼는 등나무 산의 토끼이고, 삼나무 산의 토끼는 삼나무 산의 토끼지요.’

그렇게 말하고는 모른 채 하고 있었습시다.

‘그래요. 그렇다면 나도 끼워 주세요.’

그래서 또 너구리는 토끼와 한 패가 되어 배를 만들었습니다. 토끼의 배는 삼나무 배, 너구리는 흙 배였습니다. 바다에 띄워서 자꾸자꾸 먼 바다로 나아갔을 때 토끼가 말했습니다.

‘자아, 너구리군. 노래를 부르며 뱃전을 두들겨 보세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네.’

그리고는 토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삼나무 배는 슬슬, 흙배는 탁탁, 힘껏 두드리세.’

너구리가 망치로 흙배를 두드리자, 흙배는 점차로 금이 갔습니다. 너구리는 걱정이 되어서,

‘토끼님, 배에 금이 생겼어요. 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좀 더, 좀 더 커다란 금이 생겨 물이 자꾸 자꾸 들어 올 때까지 두들겨요. 거기에서 물고기가 들어오니까...’

너구리는 그것도 그런가 보다하고 힘을 주어 뱃전을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그 뱃전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 그 곳에서 왈칵 물이 쏟아져 들어와 배는 금방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살려줘.’

너구리가 외치자, 토끼는,

‘뱃머리에 꼭 매달려 보게나.’

‘노에 꼭 매달려 보게나.’

하면서 점점 육지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너구리는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할아버지 집에 달려가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쁜 너구리는 바다에 가라 앉아 버렸으니 이제 그만 우세요.’

할아버지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울음을 그치고 산으로 나무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 (2) <심술궂은 호랑이><sup>26)</sup>

옛날에 아주 심술궂은 한 마리의 호랑이가 언제나 할머니의 무우밭을 망가뜨려 놓기 때문에 어느 날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무우 같은 것을 먹지 말고, 우리 집에 오늘밤 오시오. 팔죽을 줄 테니. 참 맛있는 팔죽을 말어요.’

하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장독에는 화로 속에 숯불을 피워놓고 부엌 입구에는 쇠똥을 많이 깔고 대문 안에는 지게를 세워놓고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호랑이가 찾아와,

‘어이 할멈, 내가 왔다.’

라고 말하므로 할머니는

‘어, 호랑이 아저씨가. 들어오세요. 그치만 오늘밤은 추운데 수고스럽지만 장독에 가서 화로를 들고 와주셨으면 좋겠네.’

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호랑이는 화로를 가지러 갔다. 보니까 불이 하나도 없어서,

‘어이 할멈, 불이 하나도 없잖아.’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위에서부터 불면 점점 불이 붙어요.’

라고 말했다. 호랑이는 말한 대로 점점 불을 붙였다. 그러자 재가 날려 호랑이 눈에 들어가 비비면 비빌수록 점점 더 아프니까,

‘할멈, 큰일이다. 재가 눈 속에 들어갔다.’

하니까,

‘그럼 부엌에 가서 물독의 물로 눈을 씻어요.’

---

26) 金相德, 『한국동화집』, 崇文社, 1959

라고하자, 호랑이는 그대로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고춧가루가 눈으로 들어가 더욱 아파서 견딜 수가 없게 된 호랑이는,

‘할멈, 이젠 더 참을 수가 없게 됐다. 빨리 어떻게 해 줄 수 없나.’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가엾게도, 그렇담 수건으로 훔쳐봐요.’

라고 하기 때문에 수건으로 문질렀다. 그러자 바늘이 눈을 찔렀다. 호랑이는 미칠 것만 같았다. 이제야 할머니에게 속은 것을 안 호랑이는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다가 그만 부엌 바닥에 뿌려 놓은 쇠똥에 미끄러져 마당에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그때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멍석이 와서 호랑이를 둘둘 말고 대문까지 가져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지게가 호랑이를 지고 바다에 갖다 던지고 말았다고 한다.

양국 이야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단·전개·결말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勝々山> 이야기

##### ① 발단: 할아버지 → 산 → 나무

할머니 → 보리 빵을 → 이웃집 며느리로 둔갑한 너구리 →  
할머니 죽음 → 할아버지 돌아옴 → 할머니로 둔갑한 너구리  
인 것을 알고 슬퍼함

##### ② 전개: 토끼가 나타나 원수를 갚아 주겠다고 함 → 억새풀로 집짓는 일에 너구리 끌어들임 → 억새풀로 만든 집에 가두고 불 지름 → 너구리 화상 입음 → 등나무로 꼬리 매어 너구리 괴롭힘

##### ③ 결말: 토끼는 삼나무 배, 너구리를 흙배를 만들었음 → 바다에 나가 배를 띄움 → 너구리의 흙배는 가라앉아 버림 → 할아버지 원 수 갚음 → 할아버지 슬픔을 그치고 행복하게 살았음

#### <심술궂은 호랑이> 이야기

- ① 발단: 심술궂은 호랑이 → 할머니의 무우밭 망가뜨림 → 할머니는 혼내줄 것을 결심하고, 팔죽 준다고하며 호랑이를 꼬득임
- ② 전개: 화로, 고춧가루, 바늘, 쇠뿔, 명석, 지게 준비 해두고 기다림 → 화로를 불게 해, 재가 눈에 들어감 → 고춧가루 물로 씻어 더욱 아프게 됨 → 바늘 수건에 눈 찔림
- ③ 결말: 눈치 챈 호랑이가 도망 가려함 → 쇠뿔에 미끄러짐 → 명석이 둘둘 말아 대문까지 감 → 지게가 지고 바다에 던져 버림

위에서 살펴본 양국 민담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      |                                                                                |
|------|--------------------------------------------------------------------------------|
| 공통 점 | 동물이 인간에게 해를 끼쳤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                                                   |
|      | 일본의 경우에는 억새풀, 등나무, 흙배를 이용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재, 고춧가루, 바늘, 쇠뿔, 명석, 지게를 이용하여 복수를 하게 된다. |
|      | 인간에게 해를 끼쳤던 동물은 마지막에 바다에 빠져 죽게 된다.                                             |
| 상이 점 | 일본의 경우에는 토끼가 나타나 인간의 원수를 갚아 주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할머니가 직접 원수를 갚는다.                     |
|      | 일본의 경우에는 해를 끼치는 동물로 너구리가 등장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호랑이가 등장한다.                            |
|      | 일본의 경우에는 해를 끼치는 동물로 등장하는 너구리가 인간으로 둔갑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둔갑하는 내용은 없다.                 |
|      |                                                                                |

양국의 이야기에서 동물은 인간에게 해를 끼쳤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일본의 <勝々山>는 동물이 원수를 갚고, 한국의 <심술궂은 호랑이>에서는 사람이 원수를 갚는다는 이야기이다. 해를 끼치는 동물로는 일본의

경우에는 너구리가 등장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호랑이가 등장한다.

일본의 <勝々山>와 한국의 <심술궂은 호랑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물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의 이야기에서는 너구리가 등장하고, 한국의 이야기에서는 호랑이가 등장한다. 일본의 <勝々山>에서는 너구리가 이웃집 며느리와 할머니로 둔갑해서 할머니를 죽이고, 할아버지를 속이는 것으로 나오는데, 너구리는 일본의 민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편이며, 거의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장난을 치는 동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日本昔話集成」에서는 둔갑담(遁甲譚)이라 하여, 주로 동물이 인간으로 둔갑한다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8가지 유형(類型)이 설정되어 있다. 일본에는 둔갑담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인간으로 둔갑하는 동물로는 대개 여우, 지네, 뱀, 구렁이, 쥐, 닭, 고양이, 호랑이, 너구리, 곰, 산돼지, 개 등이 있다. 또 가축이거나 짐승이거나 십년이 지나면 둔갑할 수 있으며, 백년이나 천년이 지나면, 인간 혹은 초자연적인 영물(靈物)이 된다는 모티프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한국의 <심술궂은 호랑이> 이야기에서는 호랑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할머니의 무우밭을 망쳐 놓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로 등장한다. 설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의 빈도수를 보면, 한국의 설화 속에 토끼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다. 또 『韓國昔話の研究』<sup>27)</sup>에 따르면 동물담에서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가 55종인데, 그 가운데 호랑이의 등장 횟수는 14회나 차지해, 토끼보다 4회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韓國動物譚』<sup>28)</sup>의 한국의 동물담에 등장하는 동물의 빈도수를 보면, 호랑이는 43회, 토끼는 40회로 호랑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호랑이는 한국의 민담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27) 崔仁鶴, 『韓國昔話の比較研究』, 三弥井書店, 1995, p.111

28) 曹喜雄, 「韓國動物譚 Index」, 『文化人類學5』 수록, 1972, pp.121-122

호랑이 이야기 중에서도 <호랑이와 꽃감> 이야기는 한국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는 민담이다. 동물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고 믿어지고, 산신과도 같은 전지전능적인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것이 꽃감이라고 하는 점과 어딘가 호랑이의 어리석음을 풍기는 점도 이 이야기의 매력이라고 하겠다. 이와 유사한 일본의 이야기에서는 호랑이 대신 원숭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것으로 보아, 한국 이야기가 원숭이가 많이 서식하는 일본에 건너가 변형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는 <소인의 호랑이 사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一寸法師>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소인의 호랑이 사냥>은 노부부의 아들인 소인이 호랑이 사냥을 떠나 열흘 쯤 되는 날, 호랑이 대장에게 잡아 먹힌다. 소인은 호랑이 배속에서 칼로 내장을 떼어 먹어, 호랑이가 아파 날뛰면서 다른 호랑이를 모두 죽인다. 그래서 소인은 배속을 뚫고 나와 모피를 팔아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一寸法師>는 노부부가 신에게 빌어 손가락 만한 아이를 얻는다. 이 아이는 밥그릇, 젓가락, 바늘을 갖고 출세하러 京都로 떠난다. 京都에 도착해 대신의 신하가 되어 히메사마의 귀여움을 받는다. 관음상에 참배하러 가는 중에 도깨비를 만나 도깨비를 물리치고 요술 방망이를 얻어, 그것으로 키가 커져 히메사마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두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국의 이야기에서는 호랑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본에서는 도깨비로 되어 있다. 이는 민족마다의 기호 내지 민속의 상이가 민담의 내용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호랑이는 우리민족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로, 건국신화(建國神話)에 등장하는 호랑이로부터 수많은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민첩과 용맹의 상징으로서 경이와 숭상의 대상이 된 호랑이는, 단군신화에서는 곰과 더불어 주인공으로 등장했고, 민간신앙에서도 산신이니, 산군자니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받들게끔 하였다. 이렇게 한국의 호랑이는 신화(神話)나 전설(伝説)에서는 신격화(神格化)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민담에서는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되기도 한다. 이처럼 호랑이는 한국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로서, 인간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의 상징으로, 또는 인간을 가해하는 두려운 존재로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호랑이에 대한 감정은 좋으면서도 싫고, 무서우면서도 우러러보는 두 가지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만큼 호랑이는 한국 민족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본의 민담에서는 한국에 비해 호랑이가 적게 등장한다. 설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의 빈도순위를 보면, 호랑이가 한국에서는 2위(38회)로 나타나는데, 일본에서는 18위(6회)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호랑이의 등장빈도순위가 양국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동물의 생태 환경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즉, 일본에는 호랑이가 옛날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랑이에 관한 신화·전설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옛날부터 호랑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호랑이에 관한 신화·전설 등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勝々山>에서는 둔갑을 잘하는 너구리가 등장하고, <심술궂은 호랑이>에서는 호랑이가 등장한다. 둔갑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너구리는 대개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장난을 치는 동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호랑이는 한국인들에게 좋으면서도 싫고, 무서우면서도 우러러보는 상반된 측면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반면, 일본은 적은 것은 동물의 생태 환경과 양국민의 기호 혹은 민속의 상이를 이유로 들 수 있다.

#### 4. <猿蟹合戦>과 <게와 원숭이>

일본의 <猿蟹合戦> 이야기와 한국의 <게와 원숭이> 이야기에서는 공통적으로 원숭이와 게가 등장해 원숭이가 게의 소유물에 욕심을 내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마지막은 유래 설명으로 정리되는데, 우선 양국의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猿蟹合戦><sup>29)</sup>

옛날, 옛날 원숭이와 게가 있었습니다. 원숭이가 감씨를 주웠습니다. 게가 주먹밥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먹밥을 보자,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게야, 게야, 감씨와 주먹밥을 바꾸지 않을래?’

게가 말했습니다.

‘그럼 바꾸자.’

둘은 바꾸었습니다. 게는 감씨를 가지고 돌아가서, 집 앞 밭에 심었습니다. 원숭이는 주먹밥을 그 자리에서 우적 우적 먹어버렸습니다.

그 후, 감씨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이윽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게는 그 감의 열매를 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에게 가서 부탁했습니다.

‘원숭이야, 원숭이야, 감의 열매를 따주지 않을래?’

‘좋아, 받아들이겠다.’

원숭이는 흔쾌히 승낙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오르더니, 자기 혼자서 익은 열매를 우적 우적 먹고 있었습니다.

‘원숭이야, 원숭이야, 나에게도 하나 건네주지 않을래?’

---

29) 坪田譲治, 『日本むかしばなし集 (三)』 <サルとカニ>, 東京 新潮社, 1976, pp.307-308

게가 나무 밑에서 부탁했습니다. 원숭이는 푸르고 딱딱한 감을 게 쪽으로 던져 주었습니다. 게가 화가 나서, 구멍 쪽으로 도망치면서 심하게 원숭이 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가 화가 나서 나무에서 내려와 게를 쫓아갔습니다. 게가 구멍 안으로 도망쳐버리자, 원숭이는 구멍 안에 자신의 꼬리를 집어넣고,

‘이봐, 게야, 이봐 게야.’

하고 고향치면서 구멍 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게는 집게발을 내어서 원숭이 꼬리를 꼭 끼었습니다. 원숭이는 너무 아파서,

‘게야, 게야, 놓아줘. 그 대신에 이 나의 꼬리털을 3개 줄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게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의 집게에는 털이 난 것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 (2) <게와 원숭이><sup>30)</sup>

이즘에 원숭이가 감씨를 가지고 갱변을 돌고 있는데 그게 기가 뜯을 맨 들으스 잔치를 벌이구 있으스. 원숭이는 그리 가스 감씨하고 뜯하고 바뀔자고 했다. 기가, ‘그 감씨가 못하는 그냐.’

물웅께 원숭이는 감씨를 당에다 심으노면 내년에는 감나무가 나스 감이 많이 연다고 했다. 기는 그말을 듣고,

‘그름 그르자.’

하고 감씨를 받고 뜯을 주다. 몇 해가 지나스 원숭이가 기네 집에 가 붕께 감나무가 크스 감이 많이 열려 있다. 원숭이는 종와라고 감나무에 올라가스 감을 따스즈만 먹고 기한테는 하나도 주지 안했다. 그롱께 기는 꼴이 나스 기들을 많이 불러다가 감나무에 씨끄롱게 붙으스 원숭이가 내려오른 물으뜯을라고 베루고 있다. 원숭이는,

‘지까짓긔들이 물면 을매내 물냐.’

하고 나무스 내려온다 기들이 모다 달라들으스 원숭이 똥구을 물으제다. 그롱께 원숭이 똥구몽은 살즘이 들으즈스 빨게 되였는되, 원숭이 똥구 이 빨게 된 곳은 그때 부툼이라고 한다.

---

30) 任哲宰, 『韓國口伝説話』, 평민사, 1990.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민담의 내용을 발단과 전개 및 결말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猿蟹合戰> 이야기

- ① 발단: 원숭이와 게 → 원숭이 감씨 주웬 → 게가 가진 주먹밥과 바꾸자고 함 → 게가 승낙함
- ② 전개: 원숭이는 주먹밥 바로 먹어 버림 → 게는 감씨 심음 → 감이 열렸으나, 딸 수 없었음 → 원숭이에게 따달라고 부탁 → 감을 따서 혼자 먹음
- ③ 결말: 화가 난 게가 욕을 함 → 게를 쫓아간 원숭이는 꼬리를 게의 구멍으로 넣음 → 게의 집게발에 물림 → 꼬리털 세 개 준다고 약속하고 풀려남 → 게의 집게발에 털이 나게 됨

<게와 원숭이> 이야기

- ① 발단: 감씨 가진 원숭이 → 떡을 가진 게 → 원숭이가 감씨를 떡과 바꾸자고 함 → 심어서 감이 열린다고 하니 게가 승낙함
- ② 전개: 게의 집에 가보니 감이 열렸음 → 원숭이 혼자만 따먹고 게에 게는 주지 않음
- ③ 결말: 화가 난 게들이 원숭이를 버림 → 게를 앞잡아 보고 내려오다 엉덩이 물림 → 원숭이 엉덩이 빨갛게 됨

상기 요약을 바탕으로 두 이야기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지적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     |                                                                     |
|-----|---------------------------------------------------------------------|
| 공통점 | 원숭이와 게가 등장한다.                                                       |
|     | 원숭이는 감씨를 게가 가지고 있는 것과 바꾸자고 한다.                                      |
|     | 원숭이는 게가 심어 놓은 감을 혼자 먹는다.                                            |
|     | 게는 원숭이에게 복수를 한다.                                                    |
| 상이점 | 일본의 경우에는 주먹밥을, 한국의 경우에는 떡을 감씨와 바꾼다.                                 |
|     | 일본의 경우에는 게가 원숭이에게 감을 따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원숭이가 그냥 올라가서 감을 따 먹는다. |
|     | 일본의 경우에는 한 마리의 게가,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 마리의 게가 원숭이에게 복수한다.                   |
|     | 일본의 경우에는 꼬리를, 한국의 경우에는 엉덩이를 문다.                                     |

양국의 이야기는 등장동물과 이야기의 발단부분, 전개과정, 결말 부분에 이르기까지 거의 차이가 없으며, 등장하는 동물도 원숭이와 게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본의 <猿蟹合戦>과 한국의 <게와 원숭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원숭이와 게에 대해 살펴보면, 감씨를 가진 원숭이가 게가 가진 주먹밥, 또는 떡과 바꾸자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원숭이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게가 심은 감씨가 자라 감이 열리자, 혼자 따먹다가 게에게 복수를 당한다. 결말 부분에서는 게가 감을 혼자 먹은 원숭이에게 복수하는데, 일본의 <猿蟹合戦> 경우에는 구멍에 넣은 원숭이의 꼬리를 게가 집게발로 문다. 한국의 <게와 원숭이> 경우에는 감나무 밑에 화가 난 게들이 잔뜩 몰려와 기다리고 있다가 게의 엉덩이를 문다.

일본의 이야기에서는 한 마리의 게가 원숭이를 무는데 반해, 한국의 이야기에서는 여러 마리의 게가 다같이 원숭이에게 복수한다. 여기에서는 개인

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일본과 개인보다는 단체를 중시하고, 개인보다 단체 일 때 강해지는, 정(情)에 약한 한국인들의 민족성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의 <猿蟹合戦>의 경우에는 욕을 하고 도망간 게의 구멍에 원숭이가 꼬리를 넣었는데, 게가 집게발로 꼬리를 물어 원숭이가 꼬리털을 세 개 주는 것으로 풀려난다. 한국의 <게와 원숭이>의 경우에는 화가 난 게들이 감나무 밑에서 내려오는 원숭이 엉덩이를 물어서 복수를 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게의 집게발에 털이 난 유래나, 원숭이가 엉덩이가 빨개진 유래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정리되고 있다. 『日本昔話名彙』<sup>31)</sup>에서는 게의 발에 털이 난 내력과 원숭이 엉덩이가 빨개진 유래 둘 다 설명하는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와 원숭이가 산에서 만나 서로 갖고 있던 감씨와 주먹밥을 교환했다. 게는 감씨를 갖고 돌아와 뿌리고, 매일 ‘씩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집게발로 싹둑 자르겠다.’ ‘커라 커라. 크지 않으면 집게발로 싹둑 자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소중하게 키웠다. 감이 익었으므로 자루를 매고 감을 따기 위해 나무를 오르려고 했지만, 도저히 오를 수 가 없었다. 그 때 원숭이가 나타나 감을 따려거든 내가 따주마 하고서, 자루를 매고 짹짹 나무에 올랐다. 원숭이는 잘 익은 감은 자신이 먹고, 게에게는 덜은 것만 던져 주었다. 게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 밑에서 ‘니가 들고 있는 자루에 감을 가득 넣어서 마른 나무 가지 끝에 걸치고 흔들면 아주 재미 날거야.’라고 말했다. 원숭이는 그러겠다고 생각하여 바로 게가 말한대로 했다. 마른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자루가 땅에 떨어졌다. 게는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자루를 들고 구멍 속으로 도망쳤다. 원숭이는 땅으로 내려와 구멍으로 다가가서, ‘내놓지 않으면 똥을 늘어놓겠다.’하고 엉덩이를 구멍 속으로 내밀었다. 게는 집

31) 柳田国男, 『日本昔話名彙』, 日本放送出版協会, 1948, pp.296-297. 전승지는 후쿠오카(福岡)현이며, <猿と蟹と柿>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

게발로 원숭이 엉덩이를 물고 놔주지 않았다. 원숭이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꼬리털을 게에게 주고서 용서를 받았다. 이것이 지금의 게의 선조로 이 게의 발에는 털이 나 있다. 또한 그 때문에 원숭이 엉덩이 털이 없고 빨갛다고 한다.」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는 게의 발에 털이 난 내력과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내력을 둘 다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원숭이 엉덩이가 빨개지고 게의 다리에 털이 난 유래를 둘 다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崔仁鶴의 「韓國昔話の研究」<sup>32)</sup>에 실려 있는 <원숭이 엉덩이와 게의 다리>가 그것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원숭이와 게가 맛있는 먹이를 찾아 나서서 얻는다.
  - ㉠ 게가 어린애 손을 집어, 식구들이 법석을 떠는 기회를 틈타 원숭이는 떡을 훔쳐 낸다.
  - ㉡ 원숭이는 그것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 혼자 먹는다.
  - ㉢ 그러다가 나뭇가지 사이에 놓은 떡이 떨어진다.
  - ㉣ 게가 그것을 집어 바위굴로 도망간다.
  - ㉤ 원숭이는 게에게 나누어 먹자고 부탁하나 거절당한다.
- ② 원숭이는 화가 나서 굴에 대고 방귀를 뀌고, 게는 엉덩이를 깨문다.
  - ㉦ 그 이후로 원숭이 엉덩이 털이 빠지고 빨개졌다.
  - ㉧ 게의 다리에는 지금도 원숭이 엉덩이의 털이 붙어 있다.

32) 崔仁鶴, 『韓國昔話の研究』, 弘文堂, 1976, p.181

永田義直의 <猿蟹合戦><sup>33)</sup> 이야기를 보면, 게가 원숭이에게 복수하는 과정에서 왕벌, 밤, 바늘, 쇠뿔, 절구가 동원되는데, 한국의 <심술궂은 호랑이>와 보다 유사한 점이 많다.

#### ① 게와 원숭이의 싸움

- ㉠ 원숭이와 게는 놀러 가는 길에서 주먹밥을 보고 게가 얼른 주었다.
- ㉡ 원숭이는 그것이 부리워 여기저기 헤매다가 감씨 하나를 줍는다. 그리고 게를 띄어 주먹밥과 바꾼다.
- ㉢ 게가 감씨를 씹었더니 잘 자라 감이 주렁주렁 열었다.
- ㉣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먹고 있자, 게가 자기도 좀 달라고 한다.
- ㉤ 원숭이는 익지 않은 푸른 감을 던지는 바람에 게가 맞아 죽는다.

#### ② 게의 복수

- ㉥ 죽은 게의 배에서 새끼 게가 나오면서 울고 있는데, 왕벌이 날아가다 이유를 묻는다.
- ㉦ 이것을 들은 왕벌은 밤, 바늘, 쇠뿔, 절구들은 동원하여 게의 복수를 갚아주기로 한다.
- ㉧ 원숭이 집에 가 기다리던 게 편은 각기 자기 할 일을 정한다.
- ㉨ 돌아온 원숭이가 춥다고 화로에 불을 지피자 밤이 튀어 올랐다. 덴 자리에 장을 바르려고 갔더니 장독 속에서 왕벌이 나와 원숭이를 쏘았다. 당황한 원숭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려고 하니 바늘이 찔렸다. 냇가에 가 목욕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자 문턱에서 쇠뿔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다. 거기에 지붕 위에서 절구가 굴러 떨어져 원숭이는

33) 永田義直, 『ふるさとの民話』 <猿蟹合戦>, 金園社(東京), 1974, p.512-515

그만 죽어 끝내 복수를 하였다.

필자가 사례로 든 坪田讓治의 <猿蟹合戦>에 나오는 원숭이 비해, 위에서 살펴 본 永田義直의 <猿蟹合戦>에서의 원숭이는 주먹밥도 빼앗아 먹고 감도 혼자 따먹고, 심지어는 계를 죽이기까지 하는 등 상당히 교활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유래 설명이나 권선징악적인면 보다는 복수를 한다는 주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양국의 민담에서 원숭이는 대개 선한자보다는 악한자, 교활한 자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잔꾀나 잔재주를 잘 부리고, 장난을 잘치는 원숭이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설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의 빈도수를 보면, 원숭이는 1위(41회)로 일본 민담에서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물 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민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물 중의 하나인 원숭이는 구비전승에서는 꽤 많은, 재주 있는, 흉내 잘내는 장난꾸러기로 자기의 잔꾀와 잔재주를 너무 믿어 제 발등을 찍는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한국의 민담 속에는 일본과는 달리 등장 빈도수가 많지 않다. 일본에는 원숭이가 많이 서식하는데 한국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 수 도 있고, 한국에서의 원숭이에 대한 나쁜 인식도 이유로 들 수 있다. 원숭이는 가장 영리하고 재주 있는 동물로 꼽히기도 하지만, 너무 사람을 많이 닮은 모습, 간사스러운 흉내 등으로 오히려 재수 없는 동물로 인식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띠를 말할 때, 원숭이띠라고 말하기보다는 잔나비띠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猿蟹合戦>과 <계와 원숭이>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일본의 민담에서 원숭이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원숭이가 많이 서식하는 생태환경의 이유를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원숭이가

많이 서식하지 않았을 뿐더러, 인식도 좋지 않아 민담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계와 원숭이> 이야기에서는 원숭이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일본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일 민담 속에 나타난 동물들을 살펴봄으로써 민담 속에 어떤 동물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동물을 보는 인간의 시각은 어떠한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동물에 반영되고 있는가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것이 양국에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 그 민족의 삶의 모습이나 민족성, 문화까지 고찰해 양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양국의 민담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개는 인간에게 충성을 다하고, 복을 가져다 주는 의리 있는 동물로 그려지고 있다. 개는 언제부터인가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었고,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었다. 이처럼 친근한 개를 단순히 가축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는 영(靈)적인 동물로 인식해서 민담에 등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이 개를 영물(靈物)로 여기는 것은, 개를 용이하게 사용한 것이 배경이 되었을 것이며, 재물을 갖게 해준다는 모티브는 개가 복을 가져다 준다는 관념이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민담 속에 등장하는 새는 종류가 다른데, 일본의 이야기에서는 참새가, 한국의 이야기에서는 제비가 등장해 인간과 동물과의 보은관계를 통해서 권선징악을 그리고 있다. 등장 동물이 새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흔하지만 친숙한 참새를 민담에 등장시켰고, 한국에서는 신성시하는 제비를 민담에 등장시켰다. 새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양국의 새에 대한 의식과 생태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새는 민담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 중 하나인데, 그 속에서 새는 천신의 사자, 또는 천신 그 자체, 조상의 영혼, 부처의 화신, 보은·전생하는 동물 등의 의미로 나

타나고 있다.

일본의 <勝々山>에서는 둔갑을 잘하는 너구리가 등장하고, 한국의 <심술  
곳은 호랑이>에서는 호랑이가 등장한다. 양국 민담에 등장하는 동물의 종  
류는 다르지만, 둘 다 인간에게 해를 끼쳐 복수를 당하는 대상으로 그려지  
고 있다. 일본의 이야기에는 인간으로 둔갑하는 너구리가 등장하는데, 너구  
리는 일본의 민담에 자주 등장하는 편이며, 거의 둔갑담(遁甲譚)으로써 인  
간으로 둔갑해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장난을 치는 동물로 나오는 경우  
가 많다. 한국의 이야기에서는 호랑이가 등장하는데, 호랑이는 한국의 민담  
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다. 한국인들의 호랑이에 대한 감정은 좋아하면서  
도 싫어하고, 무서워하면서도 우러러보기도 하는 두 가지로 상반되게 나타  
나고 있다. 이런 호랑이는 동물담(動物譚)에서는 어리석은 존재로, 신화나  
전설에서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산신(山神)이나 산군자(山君子) 등 신앙의  
대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은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반면, 일  
본은 적은 것은 동물의 생태 환경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즉 일본에는 호랑  
이가 옛날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랑이에 관한 신화·전설은 거의  
없는데 반해, 한국은 호랑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호랑이에 관한 신화·전  
설 등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양국 민담 속에 등장하는 원숭이는 계가 심어서 자란 감나무의 감을 혼자  
따먹는 간사하고 교활한 동물로 그려지고 있다. 일본의 민담에서 원숭이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 중의 하나인데, 한국의 민담에서는 등장 빈도수  
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원숭이가 많이 서식하는 일본의 생태환경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담에 원숭이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원숭  
이가 서식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의 원숭이에 대한 나쁜  
인식도 이유로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원숭이가 서식하지 않았을 뿐더러,  
인식도 좋지 않아 민담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계

와 원숭이> 이야기에서는 원숭이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일본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설화나 민담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이 여러가지 활약상으로 등장하므로, 그 속에 나오는 동물에 대한 연구는 그 나라의 문화나 민족성 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비교를 통하여 양국 민담에 등장하는 동물의 빈도수와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며, 같은 동물이라도 그 역할이 다르며, 인간들은 민담 속에 등장시킨 동물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양국에 차이가 나는 것은 동물의 생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민족의 기호나 민속의 차이, 문화의 차이로 인한 의식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민담은 상당히 오랜 세월 격변하는 환경과 어울려 어떤 것은 변화하고 어떤 것은 형태를 감춘 것도 적지 않다. 그 때문에 현존하고 있는 민담 중에서는 원형 그대로의 것은 드물고 일부가 빠지거나 더해지거나 혹은 구성이 바뀐 경우가 많다.

한국과 일본의 민담은 이야기의 전개와 구성 등에서 유사점이 많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양국이 역사적·문화적 교류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등장 동물이나, 소재면에서의 차이점은 있지만 이것은 문화나 민족성, 풍속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처럼 한·일 민담 속에 등장하는 동물의 고찰을 통해, 민담에만 국한되지 않고 양국의 문화나 민족성까지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필자의 연구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 각 민족의 정신적 문화 및 사회적 사상을 이해하도록 더 많은 민담의 비교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 및 인용 문헌>

- 成者說, 「韓日說話 比較研究의 一例」, 『古典文學研究1』 수록, 韓國古典文學硏究會, 1971, pp.39-54
- 崔仁鶴, 『韓日昔話의 比較研究』, 三弥井書店, 1995
- 成者說, 「韓日民譚의 比較研究」, 檀國大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8
- 崔仁鶴, 「韓日民譚의 共通性」, 『明知語文學9』 수록, 明知大 國語國文學科, 1977, pp.65-77
- 金文善, 「動物報恩說話 研究」, 韓國敎員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92
- 任重彬, 「韓國과 山陰地方의 民譚類話比較」, 『日本教育15』 수록, 韓國日本語敎育學會, 1998, pp.295-332
- 成者說, 「民譚 ‘선녀와 나뭇꾼의 韓·日比較」,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3』 수록, 1982, pp. 139-166
- 白仙美, 「도깨비 설화와 바케모노 설화의 비교연구」, 釜慶大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1
- 文明載, 「韓·日 文獻說話의 比較考察」, 『日本研究16』 수록, 韓國外國語大 日本硏究所, 2001, pp.125-137
- 金容儀, 「한일 동물설화의 비교연구」, 『日本語文學10』 수록, 韓國日本語文學會, 2001
- 崔仁鶴, 『口伝說話研究』, 새문사, 1994
- 崔仁鶴, 『韓國說話論』, 螢雪出版社, 1988
- 李鉉載, 「日本の 6大 옛날이야기와 韓國類話와의 比較研究」, 慶尙大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0
- 崔仁鶴, 「韓·日民譚은 同一郷土에서 生成됐다」, 『読書生活10』 수록, 三省出版社, 1976, pp.368-393
- 崔仁鶴, 「韓·日民譚의 比較研究」, 『새교육263』 수록, 大韓敎育聯合會, 1976, pp.117-120
- 金宗大, 「개미의 民俗과 象徵」, 『中央民俗學6』 수록, 中央大 韓國民俗學 硏究所, 1994, pp.307-344
- 永田義直, 「ふるさとの民話」, 東京 金園社, 1974
- 文明載, 「今昔物語集の一考察」, 韓國外國語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
- 孫晉泰, 『朝鮮民譚集』, 郷土硏究社, 1930
- 孫晉泰, 『朝鮮民譚集』, 郷土硏究社, 1950
- 任哲宰, 『韓國口伝說話』, 평민사, 1990
- 金相德, 『한국동화집』, 崇文社刊, 1959

- 李亨雨, 「韓國의 動物說話 研究」, 公州大 教育大学院 碩士學位論文, 1993
- 崔仁鶴, 「朝鮮昔話百選」, 日本放送出版協會, 1974
- 関敬吾, 『日本昔話大成』, 角川書店, 1987
- 吳出世, 「民譚에 나타난 호랑이 考察」, 『東國語文論集7』 수록, 동국대학교 인문과 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997, pp.153-171
-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박이정출판사, 1995
- 金泰坤, 崔雲植, 姜勝鶴, 全信宰, 尹光鳳, 鄭相珍, 韓彩榮 共著, 『韓國口碑文學概論』, 圖書出版 民俗苑, 1995
- 曹喜雄, 「韓國動物譚 Index」, 『文化人類學5』 수록, 1972
- 稲田浩二[外]編, 『日本昔話事典』, 弘文堂 1977
- 柳田国男, 『日本昔話名彙』, 日本放送出版協會, 1948
- 鄭寅燮, 『溫突夜話』, 日本書院, 1927
- 최내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서울), 1984
- 姜信永, 「鳥說話 研究」, 韓國敎員大 人學院 碩士學位論文, 1997

## 부 록

## 花さかじじい

### 一

花さかじじい　むかし、むかし、あるところに、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がありました。おじいさんは、山へシベ<sup>シベ</sup>刈りに、おばあさんは、川へせんたくに。すると、川を、コンボコ、コンボコ、大きなモモが流れてきました。

「もう一つこい、太郎にやろう。もう一つこい、次郎にやろう。」

おばあさんが、そういいました。モモは、だんだん、おばあさんのところへよってきました。おばあさんは、その大きなモモをひろって、うちへ持って帰り、うすの中へ入れておきました。そのうち、おじいさんが、山から帰ってきました。

「おばあさん、おばあさん、なにかないか。おなかがベコベコだ。」

285　「さっき、川へせんたくに行っていましたら、大きなモモが流れてきました。それを拾って、うすの中へ入れておきました。それでも食べてもらんなさい。」

286　「そうかい、そりや、うまいことをした。一つ、ごちそうになるるか。」

おじいさんが、そういって、うすのところへ行ってみますと、おどろいたもおどろいた。

「おばあさん、おばあさん、おまえが、うすのなかへ入れたというのは、大きなモモだというのが、はいっているのは、犬ころじゃないか。」

おばあさんも、おどろいて、飛んできて、うすのなかをのぞきました。まったく、かわいい、白い犬ころです。

「ほてな、さっきは、たしかに、モモをいれたんだが……」

日本むかしばなし集　ふたりは、ふしぎがりました。しかし、かわいい犬ころでしたから、ふたりは、それから、自分の子のようにして、だいにそだてました。犬は、だんだん大きくなり、やがては、そのあたりにはいないほど、大きな犬になりました。

### 二

あるとき、その犬が、おじいさんに、いいました。

「おじいさん、おじいさん、おれに、馬が乗っているようなくらなつけなさい。」

おじいさんは、いいました。

「あんなくら、おまえがかわいそうで、つけられないよ。」

「いいから、つけなさい。」

おじいさんは、犬の背中に、くわをつけました。すると、犬が、

「おじいさん、くわの上に、かますを乗っけなさい。」

「かますといったって、おまえがかわいそうで、つけられない。」

「いいから、つけなさい。」

そこで、おじいさんが、かますをつけますと、

「おじいさん、かますのわきに、くわをつけなさい。」

「くわといったって、おまえがかわいそうで、つけられない。」

「いいから、つけなさい。」

そこで、くわをつけました。

「では、おじいさん、おれのあとから、ついていらっしやい。」

そういって、犬は、山の方へ向かって、歩いていきました。山の奥深くは、いっていきますと、

「まあ、おじいさん、ここを、掘ってごらんなさい。」

おじいさんは、犬の背中から、くわとかますをおろして、犬のいうとおりに、ザック、ザックと、掘りました。ところが、どうでしょう、なから、大判、小判など、宝物が、どっさり出てきました。

「おじいさん、おじいさん、宝物を、かますの中に入れなさい。そして、おれの背中に乗っけなさい。」

「背中に乗っけろといったって、こんなに重いものを、かわいそうで、乗っけられない。」

「いいから、乗っけなさい。」

しかたなく、おじいさんが、かますを、犬の背中に乗っけてしまうと、まだ、犬がいました。

「おじいさん、おじいさん、おれの背中に乗りなさい。」

「乗れといったって、おまえがかわいそうで、乗れない。」

「いいから、お乗りなさい。」

しかたなしに、おじいさんが、犬の背中にまたがりますと、トントコ、トントコ、犬は、山をくだって、家に帰ってきました。おじいさんは、座敷で、かますをあけて、おばあさんとふたりで、大判、小判の宝物をとりだして、ながめておりました。

そこへ、となりのおばあさんが、

「ちょっと、火を貸してください。」

と、やってきました。そして、座敷にならべられた、たくさんの宝物を見て、まったく、びっくりしてしまいました。

「おじいさん、おじいさん、おまえさんとは、お金一つもないということで、貧乏のように

聞いていたのに、このたくさんのお金や家は、いったい、どこからとって来ました。」

そう、ふしぎがって、聞きました。おじいさんは、きょうあったらしい火のことを、はじめからおわりまで、話して聞かせました。すると、となりのおばあさんは、  
「そんないい火なら、おれのとこへも、一日、貸してください。」

そういって、わりやりに、火をひっぱって、つれていきました。

### 三

そのあくる日のことです。犬は、となりのおじいさんに、いきました。

「おじいさん、おじいさん、おれに、かますをつけなさい。」

すると、欲ばりのおじいさんですから、

「わかってるよ。おまえにかますをつけようと思って、借りてきたのだ。」

すると、まだ、犬が、

「かますのわきに、くわをつけなさい。」

「わかってる。くわをつけようと思って、おまえを借りてきたのだ。」

おじいさんは、ことばをつづけて、

「それ、山へ行け。」

と、犬を追い立てるようにして、山へ登っていきました。犬は、山へ登ると、いいかげんのところであちとまって、いきました。

「おじいさん、ここを掘りなさい。」

おじいさんは、大驚びして、サクサク、パツパツと、くわをふりあげて、土を掘りました。すると、おどろいたことに、土の中から出てきたものは、へびにカワズ、ムカデにダシダシ、ありとあらゆる、いやなものばかりです。おじいさんは、大腹立ち、

「こいつ、どうして、こんなところを掘らしたんだ。」

そういって、くわを、犬に、ひどくゴツンと打ちおろして、こわしてしまいました。そうして、穴を掘って、犬をうすめてしまいました。それでも、そのそばへ、ヤナギの枝を二本さして、仰つてきました。

うちでは、欲ばりのおばあさんが、今に、かますいっぱい、大判、小判を持って帰ってくるかと、表に川で、待っていました。そこへ、おじいさんが、ちっとした顔をして、犬もつれずに帰ってきました。

「おじいさん、おじいさん、いったい、どうしたのです。」

と、だすねますと、

「どうしたもあるものが。あの犬のいうところを掘ったら、出てきたものは、へびにカワズに、

ムカデにグジグジ。腹が立ったから、犬をぶちこころして、うずめておいた。」

#### 四

さて、そのあくる日のことです。となりの正直じいさんの家では、いっこう、犬が帰ってこないで、となりの欲ばりじいさんのところへ、聞きにいきました。すると、欲ばりじいさんは、「犬が、あんまりひどいことをしたから、こころして、土の中へいけてきた。そばに、ヤナギの枝がさしてある。」

そう、話して聞かせました。正直じいさんは、

「まあ、かわいそうなことをしたものだ。」

といって、すぐに、山へ登っていきました。ヤナギの枝のさしてあるところを、さがしさがしして行きますと、きのうさした小枝のヤナギが、もう、大きな木になっておりました。おじいさんは、かわいい犬のかたみだと思って、それを切って、もちをつくらずをこしらえました。

そして、ある日のこと、そのうすでもちをつきました。すると、おどろいたことに、もちが、いつのまにか、大判、小判、いろいろの宝物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ちやうどそのとき、また、となりの欲ばりばあさんが、火を借りにきました。たくさんの宝物を目にしますと、欲ばりばあさん、

「これは、いったい、どうしたことです。」

と、聞きますので、正直じいさんは、ありのままに話しました。

それを聞くと、また、欲ばりばあさんは、

「それでは、おれのところへ、そのうすを貸してください。」

そういうなり、へんじも聞かぬうちに、もう、そのうすをひっかついで、持って帰りました。

さて、欲ばりじいさん、ばあさんは、さっそく、用意をして、ふたりでもちをつきました。ところが、これがまた、大へんです。もちは、馬ぐそ、牛ぐそ、犬のくそ、まるで、きたないものばかり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欲ばりじいさん、大腹立ちで、おのを川に捨てて、そのうすを、こつぱみんに、たたきわってしまいました。

#### 五

そのあくる日のことです。正直じいさんが、欲ばりじいさんのところへ、やってきました。「あのうすを、かえしてください。」

「せいかくだが、あれは、あんまり腹が立ったから、いかりへくべて、燃してしまった。」

「なんと、もったいないことをしたものだ。それでは、その灰<sup>はい</sup>でも、ちやうだいしていきましょう。」

「その灰なら、いろりのすみっこにあるのが、それだ。いくらでも、持っていきなさい。」

正直しいさんは、その灰をざるに入れて、家へ持って帰りました。その帰り道のことです。きゅうに、風がふいてきて、その灰が、枯れ木の枝にふりかかりました。すると、ふしぎなことに、ポツポツポツと、枯れ木の枝に、花がさきました。

——これはふしぎだ、と、おどろいたおじいさんは、枯れ木に登り、ひとつかみの灰を、枯れ木の上にふりかけました。そうすると、そこらいちめん、美しい花ざかりとなりました。

ちやうど、そこへ、殿さまの行列が、通りかかりました。枯れ木に登っているおじいさんを見た殿さまは、

「これは、日本一の花さかじいじや。もう一度、花をさかしてみせい。」

そこで、また、おじいさんは、ひとつかみの灰を、枯れ木の上にふりかけますと、すぐに、また、パツと、美しい花がさきほころびました。殿さまは、

「まったく、日本一の花さかじい。」

といって、またまた、ほめそやしました。そうして、こほうびに、お金をたくさんつつんで、おじいさんにあたえました。おじいさんは、家に帰って、おばあさんにその金を見せ、ふたりで、それをかぞえていますと、また、そこへ、となりの欲ばりばあさんが、やってきました。

「どうしたんです、そのお金は。」

おじいさんは、さっきの灰をまた話をしました。すると、欲ばりばあさん、急いで家に帰りました。そして、そのあくる日、さっそく、おじいさんに、いろりからかき集めておいた灰を持たせて、枯れ木のところへ行って、

「日本一の花さかじい。」

と、よばせました。すると、また、ちやうど、そこへ、殿さまが通りかかり、

「それでは、ひとつ、枯れ木に花をさかしてみろ。」

と、いわれました。おじいさんは、枯れ木に登り、持ってきた灰を、どっさり、枯れ木の上にふりまきました。ところが、花は、一つもさかないで、そのかわり、灰が、殿さまや家来の目の中に、はいつてしまいました。殿さまは、大へんおこって、欲ばりにいさんを、木からひきずりおろして、ひどくしかりました。欲ばりじいさんは、何度も何度も、おわびをして、やっと、ゆるしてもらったということです。

欲ばりや、人のまねをしてはいけません。

千切りスズメ

むかし、むかしのことであります。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がありました。おじいさんは、山へシバ刈りに、おばあさんは、川へせんたくに行きました。

山へ行ったおじいさんが、べんとうを木の枝にぶらさげおくと、スズメが飛んできて、そのべんとうを、食べてしまいました。おじいさんが、枝を食ふようと思って、べんとうをひいてみますと、なかで、一羽のスズメが、クウクウ、クウクウ、怪言をしていました。これを見て、おじいさんは、腹のへったこともわすれ、とてもかわいくなって、そのまま、ふろしきにつつんで、家に持って帰りました。そして、名まえを、おちよんにつけて、おちよん、おちよんと、かわいがってそだてました。

あるとき、おじいさんは、おばあさんとスズメを家において、山へシバ刈りに出かけました。おばあさんは、天気がいいので、川へせんたくに行くことにしました。そして、せんたくした着物を、のりづけにするのりをこしらえ、縁側に出しておきました。

「おちよん、おちよん、ここへ、のりをおくからの。となりのネコにくわれないよう、番をして

おいでよ。」

そう、スズメにいつて、川へ田かけました。

おちよんスズメは、しばらくたつと、腹がへってきて、どうにもなりません。ちよっと、一口、そののりを食べてみました。とてもおいしく、つい、もう一口、また、もう一口、と、やっているうちに、とうとう、みんな食べてしまいました。

そこへ、おばあさんが、帰ってきて、

「おちよん、おちよん、だいま。のりの番をしていてくれたね。」

すると、おちよんが、いいました。

「おばあさん、おばあさん、のりは、わたしが、ちよっとゆだんしてるあいだに、となりのネコが来て、ひとなめになめてしまつた。」

おばあさんは、腹をたてて、となりのネコをひつとらまえ、

「こら、ネコ、うちののりを、なめたそうじゃないか。」

そういつて、口を見ましたら、どこにも、のりがついておりません。ひげを見ても、ついておりません。鼻を見ても、ついておりません。

——これは、へんだな。

と思ったおばあさんは、おちよんをひつとらまえ、むりに口を開けさせて、中を見ますと、お

ちよんの<sup>うた</sup>話に、のりが、まだ残っていました。

「うそをついたな。のりを食べたのは、おまゑだろ。ふといスズメッコだ。」

そういうなり、おばあさんは、はき<sup>き</sup>なを持ってきて、スズメの舌を、ちよんぎってしまいました。

「いたい、いたい。」

と、なききけびながら、山の方へ、飛んでいきました。

そのあと、すぐ、おじいさんが、シバ<sup>し</sup>を背負<sup>か</sup>って、帰ってきました。

「ばあさん、今、もどったぞ。おちよんはどうした。」

そう、聞きました。すると、おばあさんが、

「のりをこしらえておいて、川へせんとくに行っているあいだに、おちよんが、そののりを食べ、  
てもた。しかも、となりのホコが食べたよ、うそをついたで、腹<sup>はら</sup>がたって、腹<sup>はら</sup>がたって、おち  
よんの舌をちよんぎって、今、はなしてやったところじや。」

これを聞いたおじいさんは、

「まあ、かわいそうなことをした。これから、おれは、おちよんをさがして、家へつれてきてや  
ろ。」

そういつて、すぐまた、出かけていきました。

おちよんスズメは どちらへ行った

舌切りスズメは どちらへ行った

あれかわいやな やれかわいやな

こう、うたいながら、スズメをたずねていきました。しばらく歩いていくと、牛<sup>うし</sup>洗い<sup>ばい</sup>が、牛を  
洗<sup>あら</sup>っておりました。そこで、おじいさんが、聞きました。

「牛<sup>うし</sup>洗いさん、牛<sup>うし</sup>洗いさん、ここを、舌切りスズメが、通<sup>と</sup>らなんだかいや。」

「通<sup>と</sup>った、通<sup>と</sup>った。通<sup>と</sup>ったは通<sup>と</sup>ったが、牛の足を十二本、洗<sup>あら</sup>っていかなければ、教<sup>し</sup>えてやれない。」

おじいさんは、そこにいる牛の足を、ザザザ、ザザザ、水をかけて、きれいに洗<sup>あら</sup>ってやり  
ました。すると、牛<sup>うし</sup>洗い<sup>ばい</sup>が、いいました。

「この川をくだっていくと、馬<sup>うま</sup>洗い<sup>ばい</sup>がおるからな、その馬<sup>うま</sup>洗い<sup>ばい</sup>に聞<sup>き</sup>くがよい。」

そこでまた、おじいさんは、

舌切りスズメは どちらへ行った

おちよんスズメは どちらへ行った

あれかわいやな やれかわいやな

そう、うたいながら、川にそってくだっていくと、馬<sup>うま</sup>洗い<sup>ばい</sup>が、馬を洗<sup>あら</sup>っておりました。

「馬<sup>うま</sup>洗いさん、馬<sup>うま</sup>洗いさん、ここを、舌切りスズメが、通<sup>と</sup>らなんだかいな。」

「通った、通った。通ったは通ったけれども、馬の足を、二十四本、洗っていかねければ、教えてやれない。」

おじさんは、また、馬の足を二十四本、ザアザア、水をかけて、きれいに洗ってやりました。そうすると、馬洗いが、いいました。

「この川をくだっていくと、菜っぱ洗いがおるから、その菜洗いに聞くがいい。」

そこで、おじさんは、また、

おちよんスズメは どちらへ行った

舌切りスズメは どちらへ行った

あれかわいやな やれかわいやな

そう、うたいながら、くだっていくと、菜洗いがいました。

「菜洗いさん、菜洗いさん、ここを、舌切りスズメが、通らなんだかな。」

「通った、通った。通ったは通ったけれど、菜っぱを、かごに四十八ばい、洗わなけりや、教えてやれない。」

そこで、また、おじさんは、菜っぱにザアザア水をかけて、かごに四十八ばい、洗ってやりました。すると、菜洗いが、いいました。

「この川をくだっていくと、大きな大きな竹やぶがある。そこへ行くと、赤いまえかけをして、

赤いまえかけ、稲を刈っているスズメがいる。それが、舌切りスズメだ。」

おじさんは、また、

舌切りスズメは どちらへ行った

おちよんスズメは どちらへ行った

あれかわいやな やれかわいやな

と、うたいながら、川をくだっていきました。すると、大きな竹やぶがありましたので、そこ

へはいっていきますと、家がありました。トントんと、戸をたたくと、中から、

「じいさんが、ばあさんが。」

と、聞きます。

「じいさんじゃ、じいさんじゃ。」

「じいさんなら、はようおはいり。」

おじさんが、家の中へはいりますと、スズメたちが集まってきた。

「おじさん、よくいらっしやいました。」

そういつて、いろいろ、たくさんのごちそうを出して、もてなしました。おじさんが、

「では、もう、帰ろう。」

といますと、スズメが、

「おじいさん、おじいさん、おみやげは、重いづづらがいいですが、軽いづづらがいいですか。」  
 「おれは、年よりだから、いちばん軽いのを、もらいたい。」

すると、スズメは、おじいさんに、軽いづづらをつがせて、いきました。

「おじいさん、家に帰るまでは、けっして、とちゅうで、あけてはいけませんよ。家にはいって、座敷のなかでひろげるのですよ。」

「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

おじいさんは、づづらを背負って、ドッコイ、ドッコイ、つえをついて帰ってきました。座敷にはいって、づづらをあけてみますと、なかには、大判、小判、宝物がいっぱいです。  
 「わあ。」

といって、おじいさんもおばあさんも、大喜びでした。

ところが、おばあさんは、欲ばりばあさんで、

「わしも、一つ、もろりてくる。」

そういって、

舌切りスズメは どちらへ行った

おちよんスズメは どちらへ行った

あれかわいやな やれかわいやな

と、うたいながら、川をくだっていきました。やがて、大竹やぶにたどりつき、舌切りスズメの家の戸を、トント、トント、たたきました。

「じいさんか、ばあさんか。」

「ばあさんじゃ、ばあさんじゃ。」

「ばあさんなら、はようはいりなさい。」

おばあさんがはいると、スズメたちは、かきねの戸を持ってきて、おせんにし、かきねの木を切ってきては、し(簀)にし、川原の砂を、はんにして、

「さあ、おばあさん、おあがりなさい。」

と、おばあさんにすすめました。やがて、おばあさんが、帰ろうとしますと、スズメが、なぐねました。

「おみやげは、重いづづらがいいですか、軽いづづらがいいですか。」

おばあさんは、欲ばりですから、

「重いづづらにしてみらいたい。」

「それでは、これをついで、とちゅうでは、けっしてあけないで、家に帰ってから、座敷であけなさい。」

とても重いづづらを、おばあさんの背中におぶせました。

ヨッコラシヨ ドッコイシヨ

おばあさんは、泣<sup>な</sup>だくになりながらも、宝物がいっぱいはいってるのだと、大騒び。急いで家に帰って行きました。それでも、なかが見たくて見たくて、がまんができません。家のかきねのそばまで来ると、ドッコイシヨと、つづらをおろし、そろっと、ふたをあけてみました。すると、なかから、ニヨロニヨロ、ソロソロ、へじやムシやムカデ、ゲジタジ、そういうものばかりが、あとからあとから、川てきます。おばあさんは、びっくりぎょうてんして、つづらをほっぽりだして、家のなかへ逃げこみました。

彼<sup>かれ</sup>ばかりを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お話です。

## かちかち山

—

ちかし、ちかし、あるところ、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とありました。ある日のこと、おじいさんは山へシバ<sup>しば</sup>かりに行きました。おばあさんは、家で麦をついていました。すると、そこくとなりのおよめさんに化<sup>ま</sup>けて、ムジナがやってきました。ムジナはいいました。

「おばあさん、おばあさん、なにしてるの。」

おばあさんがいいました。

「麦がなくなったから、麦つきしてるの。」

これを知くと、ムジナの化けたとなりのおよめさんがいいました。

「そんなら、わたしがついてあげましょう。」

おばあさんは、ムジナとは知らないもので、大騒びして、

「そうですか、そうですか。それでは、おねがいします。」

そういつて、そのとなりのおよめさんに、髪つきをたのみました。

トンカラ、トンカラ、トンカラ、トンカラ。

ムジナは髪をつきました。だいぶんつけたところで、ムジナがおばあさんにいきました。

「おばあさん、おばあさん、髪がつけたが、見てください。」

おばあさんがウスの中をのぞいて、

「ずいぶん上<sup>うへ</sup>かげんにつけているようじゃ。」

そういいますと、ムジナのおよめさんは、

「おばあさん、もっとよく見てください。もっと、もっと、ウスの中へかがみこんで、見てください。」

そういふのでした。おばあさんは、

「はい、はい、こちらですか。こちらですか。」

そういつて、だんだんウスの中へ頭をつきこみました。すると、そのときを待っていたムジナは、上からドスンと、きねをおとしました。気のどくなことにおばあさんは、それで死んでしまいました。ムジナはおばあさんが死ぬと、こんどは自分がおばあさんに化けて、おじいさんの嫁りを待っていました。まもなくおじいさんは、

「おばあさん、かえったよ。」

そういつて帰ってきました。

「はあ、おかえんなさい。こはんをつくらせて待っていました。さあ、おあがんさい。」

ムジナのおばあさんは、おじいさんにこはんをすすめました。おじいさんは、なんとなく、おばあさんがいつものおばあさんでないようで、ふしきそうに首をかじげました。これを見たムジナは、あわてて、翌朝から逃げだしました。そして、うらの山へかけのぼり、そこから大川でどなりました。

「おばあさんは、死んだ。おじいさんは、だまされた。おれは、ムジナだ、ハッハッハ。」

こんなことをくりかえしたのです。おじいさんは、だまされたことを知って、

「おん、おん、おん、これが泣かずにいられようか。ムジナめにだまされた。おばあさんがかわいそうだ。」

そういつて泣きました。

## 二

すると、そこへ山のウサギがとんで来て、これを見ました。ウサギは、おじいさんが気のどくだりませんでした。それだ、いいました。

「おじいさん、おじいさん、わたしががたきほとしてあげますから、もう泣くのをやめなさい。」

い。」

それからウサギは、山ぐとんで行きました。かや原を見つけると、そこで歌をうたいうだい、かやを刈っておりまして。

森の中でウサギの声を聞いたムジナは、すぐとんで来ました。そして、

「ウサギさん、ウサギさん、なにをしてるの。」

と聞きました。

「おれは、これからだんだん寒くなるから、このかやで家をつくって入ろうと思っている。」

ウサギにこういわれると、ムジナは一も二もなく、その家づくりなかにまに入れてもらいたくなりました。

「ウサギさん、ウサギさん、その家づくりをおれが手つだらから、なかにまに入れてくれないか。」

ウサギはそういうのを待っていたのです。だから、

「よし、よし。だったら、まず、かや刈りを手つだえ。」

そういって、かやを刈らせました。かやが刈れると、いよいよ小屋をたてることになりました。柱を立て、横木をうちつけ、それになわで、かやをぬいつけるわけです。

「ムジナさん、きみは中ではりどりをしてくれ。」

ウサギがいました。外からなわのついた針をさしこむと、中でそれをとって、外へかえす仕

事でした。

「ほいきだ、それきた。」

と、仕事ははかどりまして。だいぶんできあがったところで、中のムジナが気がつくど、山口

がありません。

「ウサギさん、こりゃ山口がないぞ。」

「いまにつけるんじやい。」

ウサギはいました。しかし、そのとき、その家の屋根で、

カッサ、カッサ。

と、火打石の音がしました。ムジナはおどろいて、

「ウサギさん、ウサギさん、いまの音は、あれはなんだい。カッサ、カッサ。」

「うん、このころ雷が降るんで、カチカチ音が鳴ってるんだ。」

「そうか。」

といっているうちに、ウサギは逃げてしまいました。

しかし、まもなく火がまわりからもえてきて、ムジナは、あっちへ逃げては、

「あっちっち。」

こっちへ逃げては、

「あっちちい。」

大やけどをして、やっど、その小屋から逃げだしました。

### 三

それから何日かあとのことです。

ウサギは、まだヒョンヒョンはねて、藤山<sup>ふじやま</sup>へ出かけて行きました。そこで歌をうたいうだい、藤づるを刈りとっておりました。

ムジナは、またとんで来ました。そして、いいました。

「ウサギさん、ウサギさん、なにしてるの。」

「このころ、雪が降ると、おれは便所にも行かれないから、尾<sup>お</sup>からげをするのさ。」

と、ウサギがいますと、ムジナは、

「それはそらと、このあいだ、おれをだましたのは、あんたじゃないか。」

そういのでした。ウサギはおこったふりをして、

「なにをいうか。かや原のウサギは、かや原のウサギだ。藤山のウサギは、藤山のウサギじゃないか。」

そらいいました。そこで、

「そうか、それならおれにもやってくれ。」

ということになり、ムジナは藤づるで、尻<sup>しつ</sup>からげをしてもらいました。それでムジナは、歩くこともできず、走ることもできず、フンをすることもできなくなりました。そこへころんで、ウウウなるばかりでした。それでも、何日かのち、やっど、藤づるからぬけだしました。

### 四

すると、むこうの杉山<sup>さやま</sup>で、まだウサギが大きな声で歌をうたって、杉を切っていました。

これを聞くと、ムジナは、すぐかけて行きました。

「ウサギどん、ウサギどん、なにをするの。」

「これから春になると、海がしずかになるから、杉の木で舟<sup>ふね</sup>をつくって、沖<sup>おき</sup>へさかなをつりに行こうと思ってるさ。」

「ウサギどん、ウサギどん、その舟<sup>ふね</sup>づくりのなかまにしておくれよ。それはそらと、いつか藤山では、おれをすいぶんひどい目にあわせたな。」

そんならみごとをいいました。ウサギは、

「藤山のウサギは、藤山のウサギ。杉山のウサギは、杉山のウサギだ。」

そらいって、知らぬ顔をしております。

「そうか、それなら、おれもなかまにしておくれ。」

そこで、またムジナは、ウサギとなかまですべて舟をつくりました。ウサギは杉の木舟、ムジナは土の舟です。海へうかべて、どんどん沖へ出たところで、ウサギがいました。

「さあ、ムジナ君、歌をうたって、かいでふなべりをたたこう。そうしないと、さかなは取れないよ。」

そこでウサギは歌をうたいました。

すきふねは すいすい

土ふねは こっくりし

せいいつく たたけ

ムジナがつちで土舟をたたくと、土舟はしたいにひびがはりました。ムジナは心配で、

「ウサギさん、舟にひびができた。水が入りそうだ。」

そういいました。すると、ウサギは、

「もっと、もっと、大きなひびがはいて、水がどんどん入るまでたたくんだ。そこから、さかなも入ってくるんだ。」

ムジナは、それもそうかと思つて、ますます力をいれて、ふなべりをたたきました。すると、そのふなべりに大あながあき、そこから水がどっと入って、舟は見るまにしずんでしまいました。

「だすけてくれ。」

ムジナがさけぶと、ウサギは、

るに とつつけ くい

かいに とつつけ くい

といつて、どんどん陸へあがってしまいました。ムジナは沖でしずんでしまいました。

それで、ウサギはおじいさんのところにとんでかえって、

「おじいさん、おじいさん、わるいムジナは海にしずんでしまったから、もう泣くのはおやめなさい。」

おじいさんにそういいました。それで、おじいさんは泣くのをやめて、山へシバかりに行くようになりました。そして、しあわせにくらしました。めでたし、めでたし。

## サルとカニ

むかし、むかし、サルとカニとがおりました。

サルが、カキのたねをひろいました。カニが、にぎり飯<sup>にぎりめし</sup>を持っていました。にぎり飯を見ると、サルが、いいました。

「カニどん、カニどん、カキのたねとにぎり飯と、とっかえっこしないか。」

カニが、いいました。

「じゃ、とっかえっこしよう。」

ふたりは、とっかえっこしました。カニは、カキのたねを持って帰り、家の前の畑にまきました。サルは、にぎり飯を、その場で、ムシヤムシヤ食べてしまいました。

そのご、カキのたねからは、芽が出て、木になり、やがて、花がさいて、実がなりました。ところが、カニには、そのカキの実がとれません。そこで、サルのところへ行って、たのみました。

「サルさん、サルさん、カキの実をとってくれないか。」

「よし、ひきうけた。」

サルは、大急ぎでしゅらして、山かけてきました。そして、木に登ると、自分ひとりで、うれた実を、ムシヤムシヤ食べています。

「サルさん、サルさん、おれにも、ひとつ、わたしてくれないか。」

カニが、木の下からたのみました。サルは、背いたたいカキを、カニに向かって投げつけました。カニは、おこつて、穴<sup>あな</sup>の方へ逃げながら、さんざん、サルの悪くちをいいました。こんどは、サルがおこつて、木からおりて、カニを追っかけてきました。カニが、穴のなかへ逃げこみますと、サルは、穴のなかへ、自分のしっぽをつっこんで、

「こらカニ、こらカニ。」

と、どなりながら、穴の中をかきまわしました。

すると、カニは、はさみを出して、サルのしっぽを、キョッとはさみました。サルは、いたくていたくて、

「カニどん、カニどん、はなしておくれ。そのかわり、このおれのしっぽの毛を、三本やるから。」

そういつて、カニに、かんべんしてもらいました。それから、カニのはさみには、毛がはえ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 <부록 참고문헌>

著者: 坪田讓治, 発行者: 佐藤亮一, 『日本むかしばなし集(一)』, 発行所: 東京 新潮社, 昭和五十年 三月三十日 発行, 昭和五十二年 四月五日 十六刷

著者: 坪田讓治, 発行者: 佐藤亮一, 『日本むかしばなし集(二)』, 発行所: 東京 新潮社, 昭和十一年 十月三十日 発行, 昭和六十二年 六月二五日 二十五刷